

워크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How to Promote Workcation

2022-15

수시연구

김성윤
김현지
김형곤



수시연구 2022-15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how to promote workcation

김성윤·김현지·김형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이현지 동의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형곤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개요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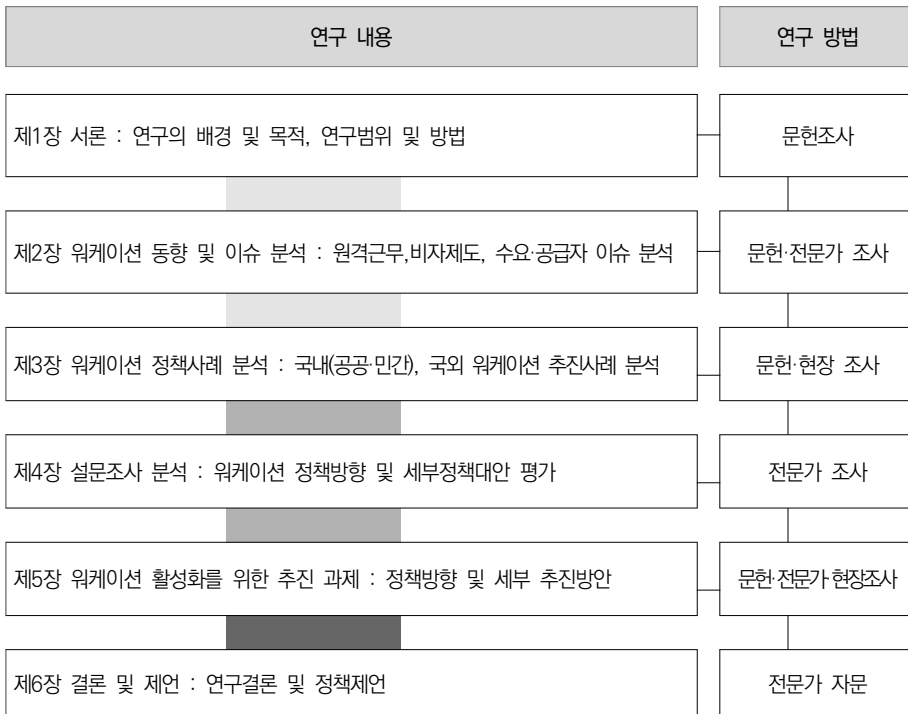
- 서구사회에서는 지식기반 사업체제로 경제구조가 전환되고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책환경도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원격근무가 활성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음. 원격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일본에서는 원격근무의 장소가 자택이 아닌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워케이션(Worcation)’이라는 새로운 업무스타일을 개발하면서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워케이션을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 도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워케이션이 트렌드로 부상하게 된 현황과 이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 둘째,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워케이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추진 방안을 제시함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22년을 기준시점으로 설정하고 전국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도록 함

- 연구의 대상은 국내 위케이션 사업을 수행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과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공영역에서의 위케이션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의 내용은 첫째, 위케이션 동향 및 주요이슈에 대한 검토, 둘째, 국내외 위케이션 정책 및 추진사례 검토, 셋째, 정책동향과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된 대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도록 함
-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조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문헌조사는 선행연구 및 보고서 검토, 타부처 정책추진 계획(안) 분석, 위케이션 관련 사업 실행 계획서 검토 및 신문기사를 분석하였음. 또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함께 정책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지를 답사하여 현장의 상황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표 1〉 연구흐름도



2. 워케이션 동향 및 이슈분석

2.1 워케이션 관련 논의

-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cation)의 개념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본에서 시작되었음(Yoshida, 2021). 이러한 개념은 2010년대 서구의 주요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어졌음(Amano, 2018)
- 워케이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가 미흡한 만큼 통일된 개념적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자와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볼 때, ICT기술의 발달로 원격근무 형태가 가능해지면서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개념이 합성된 신조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휴가지에서의 근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발표되고 있음
- 워케이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와 지역관광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재택근무의 생산성 향상, 창의력 개발의 기회, 직무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 마지막으로 근무혁신 및 비용절감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음
 - 지역관광 측면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워케이션을 도입하여 유희공간 재생 및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에 있어 새로운 관광수요로 예상하고 있음

2.2 워케이션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근무의 확산과 보편화는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방식을 고안해냈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그간 근로형태를 유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었음
 - 유럽에서는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 고령친화적 생활 업무환경 프로젝트, CITADEL ecosystem, 공공의 유연근무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음

- 미국은 「텔레워크 촉진법(2010)」을 계기로 재택근무를 통해 노동력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핵심요소로 삼았으며, 기관 들에는 업무 목표를 충족시키고 직원들에게는 일과 삶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
 -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가족시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휴가제도 도입을 통해 휴가에 대한 대국민적 의식변화를 추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휴가취득을 통해 외출 혹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포지티브 오프 운동을 전개함.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휴가를 즐기는 라이프·라이프·밸런스 실현이 가능한 「라이프·이노베이션」으로 연결해 갈 것을 목표로하였음
 -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계기로 공공영역에서의 시범적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음.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공급 기업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함
- 디지털 노마드의 특징은 근무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장기체류 비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원격근무자 비자를 신설하기로 발표하였음
- 세계 비자 가이드(visiguide.world)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총 42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17개국, 버뮤다, 브라질 등 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16개국, 모리셔스, 남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 4개국에서 시행중임. 아시아는 총 5개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두바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관광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며,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로 콘텐츠 제작자, 웹사이트 개발자, 소셜미디어 마케터, 디지털 기업가에게 적합함. 자격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특정 월소득, 직업 증빙, 일정 재산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 장기 비자를 허용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재의 국내정착을 유도하는 뜻으로 관광정보 제공, 종사분야별 거주지 추천, 원격근무지 제공, 동종업계 협업 및 취업지원, 자녀 진학상담 및 배우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2.3 워케이션 수요 및 공급자 이슈 분석

가. 수요자 이슈분석

- (정책추진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 최근 IT 대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자율 원격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워케이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음. 앞서 언급한 워케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직무만족도 향상과 기업의 내부비용 절감으로 예상되어질 수 있음
 - 직장인들은 산업별 근로형태, 기업규모에 따라 세분화시킬 수 있으며, 원격근무자와 IT 기업의 종사자 등을 워케이션 제도를 통한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워케이션 참여에 대한 국민인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간 이동제한의 결과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전환되면서 숙박시설의 고급화, IT대기업 홍보자료, 국내 호텔 워케이션 특화상품에 대한 이미지 등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 우려
 - IT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가 배포되면서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대기업에서는 위성오피스, 자체보유 연수시설 및 계열사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수요자측 비용부담에 관한 이슈)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를 원격근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업복지 및 기업문화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비용부담은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워케이션은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비용부담이 있을 경우 참여의사가 저하됨을 확인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와 업무명령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일정부분 발생될 수도 있음

나. 공급자 이슈분석

- (관리직군의 부정적 인식) 원격근무에 대한 확장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워케이션에 적합한 업무, 인재유치, ESG와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업무 효율성, 형평성, 비용 등에 대한 저해요인도 고려해볼 수 있음
- (다양한 목적의 워케이션 도입) IT 대기업은 내부자원을 바탕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워케이션 도입에 대한 기업의 니즈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
 - 대기업은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대외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생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고려하고 있음
 -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목적은 인재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 성과가 필요한 업무를 부여하여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원격근무 생산성 하락요인)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되고 원격근무가 도입되었으나 생산성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됨

〈표 2〉 워케이션 생산성 이슈

구분	세부내용
향상요인	① (개인) 통근시간의 절약, 업무 집중력 향상, 자율성 증대 등으로 직무 만족도 증대 → 직원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생산성과 기업이윤이 증가함(LSE, 19.7월) ② (기업) 고용관련 비용의 절감효과 → 거리제약 완화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 기회 증가, 이·퇴직률 하락은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됨(Clancy, 2020)
저해요인	① (직원) 구성원 간 유기적 의사소통이 줄고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구성원 간 대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존 직원은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특히 신입직원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 ② (경영진) 관리·감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재택근무는 각 주체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됨 → 재택근무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심화시켜 근무태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직원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Bonet: Salvador, 2017)

- (기업 추가비용 부담) 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위해 사무실 조성비용이 투입되어 있으나 워케이션 도입을 위한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3. 워케이션 추진 사례 분석

3.1 일본 : 워케이션 정책 및 지역사례

- 일본에서의 워케이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환경변화와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 개혁(2018)」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경직된 근로환경,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도입하였음
- 일본 관광청은 2020년부터 「새로운 여행 스타일」의 보급과 촉진을 위해 기업, 지역, 관광·경제단체, 관련 중앙부처와 연계하면서 단계적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시범사업, 정보발신, 조사업무 및 기업·지역의 교류회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표 3〉 2022 새로운 여행스타일 촉진사업

시범사업	정보발신
- 각 40개의 기업·지역을 매칭하고 기업에게는 제도 도입촉진과 효과검증, 지역에는 수용환경 정비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파견, 기업의 제도도입, 지역 수용체재정비를 위한 조언, 지도 실시	- 기업·종업원(이용자), 지역이 가지는 잇점 보급을 위한 정보발신 실시 ① Web 광고 ② 기업대상의 온라인 세미나 ③ Web 사이트 콘텐츠 확충 ④ SNS로 정보발신
조사업무	기업·지역의 교류회
- 워케이션 정착을 위한 현상과 과제도출, 각종 데이터의 변화 확인을 목적으로 Web 조사 실시 ① 기업 ② 종업원 ③ 모델 기업·지역	- 기업·지역이 운영 및 추진상황 공유(교류회) - 타 지역간·타기업간 교류회를 통해 각자의 사례및 노하우에 대한 정보교환
검토위원회	
관계 성청과 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금후 워케이션 추진을 위한 방향성 검토	

- (와카야마현 워케이션) 2017년부터 전국 지자체중 선도적으로 워케이션 활동을 개시하면서 기업을 대상으로 2017~2019년간 104개사 910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게 되었음. 이를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음
- (오이타현 벳부시 : 휴양형) 기업과 온천지역을 매칭하여 온천지 방문을 통해 지역 상생에 공헌하고 업무의 활동은 주로 심신건강, 헬스케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합숙형 워케이션을 지향하고 있으며 연수형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확장을 검토하고 있음

- (홋카이도 후라노시 : 합숙형) 사원연수에 워케이션 활용하면서 환경문제와 지역과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코로나로 교류 적은 동기와의 동료 의식 양성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실천에 도전함
-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 지역과제 해결형) 도시형 워케이션 형태로 동경도 IT 벤처 기업이 후쿠오카시 중심부와 교외 지역 두 곳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통상적인 업무와 함께 중심부에서는 시내 기업과 교류하고 교외로 이동시켜 시가지마의 료칸이나 리조트호텔에 체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후쿠오카시의 워케이션 코디네이터는 민간 사업체인 (주) HOnPro가 담당하고 있으며, 노무사출신, 식품개발경영, IT 온라인교육, 인사재무담당 등의 전문분야를 보유하고 있음

3.2 유럽 :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례

- (포르투갈 마테이라) 2020년부터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 하나인 마테이라섬 남쪽에 위치한 인구 8,000명 정도의 마을인 폰타 도 솔에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폰타 도 솔 프로젝트의 핵심은 해외에서 방문한 원격근무자가 쉽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여가 및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윈스톱 서비스를 운영중임
 - 빌리지에 체류하는 원격근무자들에게는 호텔, 단독주택, 공동숙소 등의 선택지가 있으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가, 명상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및 마테이라섬 곳곳을 탐방할 수 있는 관광활동을 제공함
- (크로아티아 자다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로아티아에서는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자다르에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 노마드 마을을 조성함

- 해당 마을에는 모바일 하우스, 공공와이파이, 공유 오피스공간 등을 지니고 있으며, 커뮤니티 매니저가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를 제공함
- 해외 디지털 노마드를 위해 매력적인 도시로 홍보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진행하며, 디지털 노마드 워크 이벤트를 개최하여 디지털 노마드를 대상으로 온라인 강연 및 토론을 통해 홍보를 실시함
- (브라질 피파) 포르투갈 스타트업 회사인 NomadX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해외 원격근무자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 북동부 해안 마을인 피파시의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를 조성함
 - 브라질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북반구가 겨울에 접어드는 시즌에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의 추위를 피해 방문하는 북반구의 여행자들이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디지털 노마드 시장을 연계하려는 전략을 추진함
 - 빠른 인터넷 속도, 마을내 숙박시설, 유럽과의 이동시간 및 시간대(Time Zone), 다양한 레스토랑, 서핑을 포함한 스포츠활동, 공항과의 인접성, 이국적인 분위기 등을 홍보함
- (이탈리아 헤드쿼터 빌리지) 이탈리아에 위치한 민간기업으로 작은 마을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노마드로 불리는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을, 마을 자산 소유자, 기업 및 디지털 노마드의 역할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마을)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기 원하는 개별 마을들을 고객으로 하여 마을이 지닌 다양한 자산들을 외부에 홍보하고 디지털 노마드들의 요구에 대응함
 - (마을 자산 소유자) 자신이 지닌 주택과 상점들과 같은 자산을 디지털 노마드의 숙박 및 편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지원, 운영 컨설팅을 제공함
 - (기업) 원격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격근무공간으로서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을 연결시키고 직원들이 해당 마을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
 - (디지털 노마드) 마을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러 편의와 관광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3.3 국내 워케이션 추진사례

가. 공공기관 주도형 워케이션 모델

- (강원도 관광재단) 기업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와 전문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같은 개인단위의 희망자를 참가시켜 인식을 전환시킴

〈표 4〉 강원도 관광재단 워케이션 판매상품

구분	영월	양양	태백	삼척
1인 1실 숙박	탐스텐 동강시스타 에코빌리지	더앤리조트 양양슬로스킵	태백 오투리조트 구소문 힐링캠프	삼척 씨스포빌
공유오피스	숙소별 지정장소 또는 인근 카페 등			
식사	조식제공			
주요 체험프로그램	지역체험, ESG 프로그램			
운영기간	06.07(화) ~ 07.15(금)		9.20(화) ~ 10.28(금)	

-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의욕 제고와 근무여건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표 5〉 서울산업진흥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구분	영월·양양	삼척·태백	제주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1인 1실 숙박	(영월) 동강시스타, 에코빌리지 (양양) 더앤리조트 양양슬로스킵	(태백) 오투리조트, 구소문 힐링캠프 (삼척) 씨스포빌	호텔 또는 펜션	호텔, 펜션, 글램핑/카라반
공유오피스	숙소별 지정장소 또는 인근 카페 등			
식사제공	조식 제공	조식 제공	조식 미제공	조식 제공
주요 체험프로그램	지역체험, ESG 프로그램		자율선택	어촌 및 갯벌체험
운영기간	6.7(화) ~ 7.15(금)	09.27.(화)~11.18.(금)	09.27.(화)~12.16.(금)	09.27.(화)~12.16.(금)
비고	강원관광재단과 협업			

- (한국관광공사) 티몬, 휴넷 등 14개의 기업의 신청을 받아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하였음
 - 평일에는 해당 지자체의 숙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과 후나 주말에는 해당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체류 및 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원격근무를 통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음

나. 지자체 주도형 워케이션 모델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촉진과 업무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워케이션 워크 랩스(Island Work Labs)라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 2022년 사업은 공유오피스를 기존 서귀포시와 함께 제주시를 추가하여 운영하였으며, 인근 숙박시설과의 제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는 숙박시설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음. 2차년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B2G사업의 형태로 전환하면서 6주 동안 65명의 임직원들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 (하동군) 2021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직장인 체류형 워케이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는 개인단위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3박 4일동안 숙박비 전액과 하동군 농어촌 체험, 관광지 입장료 등 체험비를 지원하였음
 - 하동군의 드라마 촬영지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통해서 유희시설 및 노후숙박시설을 활용하여 한옥호텔인 청송재를 조성할 계획임
- (제주도 질그레이센터) 세화마을 협동조합은 지역의 현안으로 삼고 있는 청장년층의 이·탈농, 이주민 유입,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이 저하되고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은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거점 센터를 조성하고, 조합원들의 활동 거점, 지역 소통을 위한 장소,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의 창출공간임
 - 지역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마을여행사를 별도로 설립하였으며, 테마별 전문 주민해설사가 동행하여 관광객들과 교류하고 있음
 - 지역내 인프라 보수, 인건비 등과 관련된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일부 부담하고 있으면 수익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제주관광공사는 지역사업의 대외 홍보를 지원하며, 관광벤처기업인 스트리밍 하우스와 협력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 한산디지털노마드센터)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서천군과 함께 한산면에 ‘삶 기술학교’ 한산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시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와 지역 상생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함
 - 지역의 유희시설(과거 여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20년에 숙박공간으로 변경하였는데, 삶기술학교 출신 청년들을 위한 거주공간과 숙박공간이 부족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한달살이하는 임시거주지와 관광객들의 숙박공간으로 활용됨
 - 디지털노마드 센터 1층은 스마트 공유 사무실로 조성하고, 2층에는 디자인실, 미디어실, 프로듀싱실 등 여러 작업공간에 영상과 음악 등 멀티미디어 제작과 화상회의 장비를 설치하였음. 디지털노마드 센터로 인해 한산면 마을 전역에 공공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되었음

다. 민간주도형 위케이션 모델

- (IT 대기업) 개발자 채용의 어려움과 우수 인력유치를 위해 ‘위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 분산 오피스 등을 이용하여 위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일부 기업들은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내 추천을 통해 진행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복지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력 양극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보조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특급호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원격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4성급·5성급 호텔들은 자체적으로 위케이션 상품일 기획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판매되었던 상품을 살펴보면 일일 오피스 형태로 객실을 제공하거나 여행 또는 휴식의 컨셉으로 장기 투숙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음

4. 전문가 조사분석

4.1 조사개요

- 본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개발하여 관광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14일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하였음
 - 조사의 주요 목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민간주도의 위케이션 프로그램의 파급력 검토, 공급부문(인프라, 정보, 정책지원)과 수요부문(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표 6〉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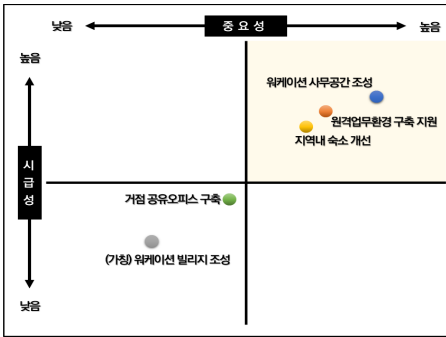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조사기간 / 조사대상	2022년 10월 31일 ~ 11월 14일 / 관광분야 전문가 및 사업담당자
표집방법	판단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조사표본 / 방법	30부 (관광전문가 20부, 사업담당자 10부) 배포 / 온라인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 주도 프로그램에 대한 파급력 평가 - 공급부문 정책대안 평가 : 인프라, 정보구축, 정책지원 영역 - 수요부문 정책대안 평가 : 프로그램 개발, 홍보

4.2 조사분석 결과

- 응답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주도한 위케이션 활동을 정리하여 설명자료로 제공하였음
- 국내외 위케이션 동향,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위케이션 사례를 분석하여 공급 부문과 수요부문에 대해 22개의 대안을 도출하였음. 정책대안은 공급부문에서 인프라, 정보구축, 정책지원으로 구분하고, 수요부문에서는 프로그램과 홍보로 분류하여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또한, 인프라, 정보구축, 프로그램, 홍보에 대해서 정부, 민간, 공공의 역할을 확인하였음

- 앞서 제시한 5개 분류항목에 속해있는 세부 평가대안에 대해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프라영역에는 ‘지역내 숙소개선’, ‘위케이션 사무공간 조성’, ‘원격업무환경 구축 지원’이 중요성과 시급성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거점 공유오피스 구축’, ‘(가칭)위케이션 빌리지 구축’은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정보구축 부문에서는 ‘위케이션 대상지 정보구축’ 항목이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았으며, ‘표준모델 가이드 제작’ 및 ‘위케이션 현황 모니터링 실시’ 항목은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영역으로 평가되었음. 마지막으로 ‘위케이션 대상지 인증사업’은 정책사업으로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1] 인프라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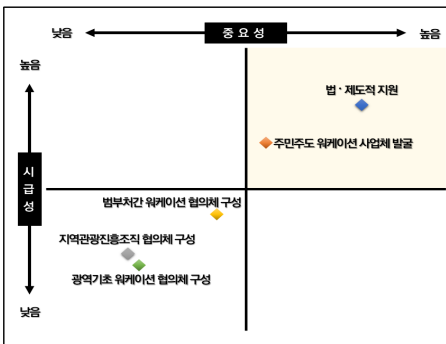


[그림 2] 정부구축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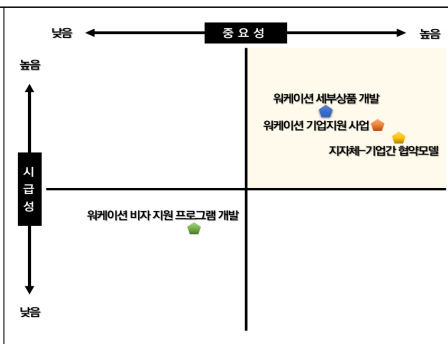


- 정책지원 영역에서 ‘법·제도적 지원’, ‘주민주도형 위케이션 사업체 발굴’ 이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 평가되었으며,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위케이션 세부상품 개발’, ‘위케이션 기업지원 사업’, ‘지자체-기업간 협약모델 개발’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평가하였음

[그림 3] 정책지원 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그림 4] 프로그램 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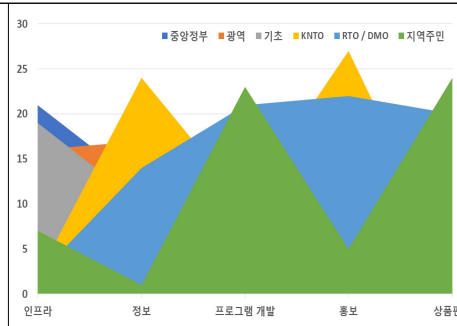


- 마지막으로 홍보의 영역에서는 ‘예약 및 홍보 플랫폼 구축’, ‘위케이션 인식전환 캠페인’이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항목이며, ‘국내의 홍보’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음. 마지막으로 ‘위케이션 우수기업과 지자체 시상’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5] 홍보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그림 6] 영역별 이해관계자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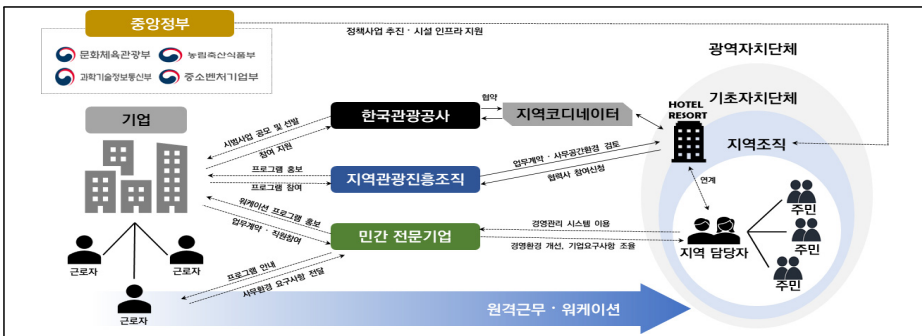
-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지원을 제외한 4가지의 영역과 함께 상품 판매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별 역할분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
 - 인프라구축은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다수가 응답했으며, 정보구축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음. 기초자치단체, 지역관광진흥조직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보는 한국관광공사 및 지역관광진흥조직이 추진해야 할 역할로 평가함
-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케이션 사업은 공공주도형이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아직까지 위케이션이라는 근무제도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주도하여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위케이션 사무공간과 숙박인프라의 확충, 위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정보구축, 위케이션 세부프로그램 발굴 등 추진해야할 과제들을 정리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위케이션 세부상품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과의 매칭사업을 구성하여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5.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5.1 기본방향

-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환경변화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음. 최근 위케이션은 관광지에서의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코로나19로 야기된 새로운 트렌드임
 - 근로자들에게는 근무만족도 상승, 직장에서의 새로운 경험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에는 기업경쟁력 강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및 ESG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킨다는 장점이 있음. 기업과 근로자측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관리직군의 부정적 인식 등과 같은 단점도 존재함
 - 위케이션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경제교류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는 국민·기업·지역이 상생하여 위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은 위케이션 시설 및 환경 조성지원과 위케이션 수요 확대 방향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진흥조직, 민간조직 등 상호간역할을 조정하며, 합리적인 기능을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는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정보 구축과 홍보역할을 증점적으로 수행할 뿐만아니라 지역관광진흥조직과 지역주민조직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과 상품판매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그림 7] 위케이션 추진 현황



5.2 분야별 정책추진 과제

- 위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하며, 위케이션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 위케이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격업무환경 구축, 숙박인프라 조성, 거점 오피스 구축지원과 같은 인프라 구축, 주민주도 위케이션 모델 발굴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모델 가이드, 위케이션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가 수집한 정보를 민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함
 -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세부상품 개발, 기업과의 사업비 분담을 통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 지자체와 기업 간 협약 모델을 통해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또한, 정부는 법·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 중요함.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식전환 캠페인과 더불어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의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향후에는 위케이션 예약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민간에서 자유롭게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임

〈표 7〉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정책방향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시설 및 환경 조성지원	위케이션 인프라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업무환경 구축 지원 ◦ 숙박환경 조성 지원 ◦ 거점오피스 구축 지원 ◦ 주민주도 위케이션 사업체 발굴 ◦ 정책 및 사업 협의를 위한 수단 마련
	위케이션 관련 정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케이션 대상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표준모델 가이드 제작 ◦ 위케이션 실태조사
수요확대 방안	위케이션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케이션 세부상품 개발 ◦ 기업 지원사업 추진 ◦ 지자체-기업간 협약모델 개발 ◦ 법·제도적 지원
	체계적인 홍보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인식전환 캠페인 추진 ◦ 전략적 홍보 추진 ◦ 예약플랫폼 환경 조성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연구 흐름도	6
제2장 워케이션 동향 및 이슈 분석	7
제1절 워케이션 관련 논의	9
1. 워케이션의 등장배경	9
2. 워케이션 정의 및 유형	10
3. 비즈니스·지역관광관점의 워케이션 기대효과	14
제2절 워케이션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16
1. 원격근무제도의 확산	16
2.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장기체류 비자 운영	20
제3절 워케이션 수요·공급자 이슈 분석	23
1. 수요자 이슈 분석	23
2. 공급자 이슈 분석	26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1
1. 요약	31
2. 시사점	33

제3장 워케이션 추진 사례 분석	35
제1절 사례분석 개요	37
제2절 국외 워케이션 정책분석	38
1. 일본 : 워케이션 정책 및 지역사례	38
2. 유럽 :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례	48
제3절 국내 워케이션 추진사례	55
1. 공공기관 주도형 워케이션 모델	55
2. 지자체 주도형 워케이션 모델	57
3. 민간주도형 워케이션 모델	6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63
1. 요약	63
2. 시사점	65
제4장 전문가 조사분석	67
제1절 조사개요	69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69
2. 조사 대상 및 항목	69
제2절 조사분석 결과	70
1. 2022년 워케이션 추진사업 설명	70
2. 정책대안별 중요성-시급성 평가	71
3. 이해관계자별 역할분담 평가	75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76
1. 요약	76
2. 시사점	77
제5장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79
제1절 기본방향	81
제2절 분야별 정책추진 과제	85
1.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	85
2. 워케이션 관련 정보 구축	89
3. 워케이션 수요확대	90
4. 체계적 홍보사업 추진	93

제6장 결론 및 제언	97
제1절 결론	99
제2절 정책제언	101
참고문헌 /	103
ABSTRACT /	105
부록 설문조사표 /	109

표 목차

〈표 1-1〉 연구방법	6
〈표 1-2〉 연구흐름도	6
〈표 2-1〉 워케이션에 대한 정의	10
〈표 2-2〉 유연근무제 종류	19
〈표 2-3〉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시설	19
〈표 2-4〉 디지털 노마드 비자운영 국가(예시)	21
〈표 2-5〉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생산성 이슈	29
〈표 2-6〉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생산성 이슈	32
〈표 3-1〉 2020 새로운 여행스타일 사업내역	39
〈표 3-2〉 2022 새로운 여행스타일 촉진사업	41
〈표 3-3〉 기업 및 종사원 대상의 워케이션 현황조사 결과	41
〈표 3-4〉 시범사업 참가기업 및 종사원 대상 조사내용 요약	43
〈표 3-5〉 참가기업 및 지역간 인터뷰 내용 요약	44
〈표 3-6〉 기업·지역 교류회 시사점	44
〈표 3-7〉 기업·지역 교류회 시사점	45
〈표 3-8〉 강원도 관광재단 워케이션 판매상품	56
〈표 3-9〉 서울산업진흥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56
〈표 3-10〉 주요 IT 대기업 워케이션 제도	61
〈표 3-11〉 주요 호텔 워케이션 상품	62
〈표 4-1〉 조사 개요	69
〈표 4-2〉 공급·수요부문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대안별 중요성-시급성 평가	72
〈표 4-3〉 주체 및 역할별 빈도분석	75
〈표 6-1〉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과제	100

그림 목차

[그림 2-1] 일본관광청의 워케이션 유형	12
[그림 2-2] 워케이션 유형 및 향후 발전방향	13
[그림 2-3] L사 워케이션 숙박중심 판매상품	25
[그림 2-4] G사 워케이션 오피스중심 판매상품	25
[그림 2-5] 지역-기업 모델개념도(2021)	40
[그림 2-6] 지역과 기업관계도(2021)	40
[그림 2-7] 일본형 워케이션 추진방향	45
[그림 3-1] 후쿠오카시의 비즈니스 매칭 상담 흐름도 및 코디네이터 (주) HOnPro	48
[그림 3-2] Ponta do sol	50
[그림 3-3] Porto Santo	50
[그림 3-4] 공유 오피스	51
[그림 3-5] 커뮤니티 행사	51
[그림 3-6] 마을 전경	51
[그림 3-7] 리조트 전경	53
[그림 3-8] 스포츠 활동	53
[그림 3-9] 제주시 공유오피스	58
[그림 3-10] 서귀포시 공유오피스	58
[그림 4-1] 인프라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73
[그림 4-2] 정부구축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73
[그림 4-3] 정책지원 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74
[그림 4-4] 프로그램 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74
[그림 4-5] 홍보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74
[그림 4-6] 영역별 이해관계자 역할분담	75
[그림 5-1] 워케이션 추진 현황	81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원격근무의 활성화와 원격근무의 수요 증대

- 워케이션은 원격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사무실의 대체장소가 공유오피스, 관광지, 휴양지 등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인정하는 제도로 변화됨에 따라서 워케이션이 부상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음
- 유럽에서 시작된 EU텔레워크 기본협정(2002)은 지식기반 사업체계로 경제구조가 전환되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유연해지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원격근무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음
- 동양사회에서 주목받는 워케이션(workcation)의 개념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본에서 시작되었음(Yoshida, 2021). 이 개념은 2010년대 서구의 주요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어졌음

나.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수요와 공급측면의 다각적 검토 필요

- 원격근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실증사례에 나타나고 있는 이슈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워케이션을 공급하는 지자체, 제도로서 제공하는 기업,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워케이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됨
- 국내외 사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워케이션을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위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의 과제를 도출함

다.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필요

- 위케이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비즈니스와 지역관광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재택근무의 생산성 향상, 창의력 개발의 기회, 직무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 마지막으로 근무혁신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지역관광의 측면에서는 평일의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음(박효연·황지영, 2021)
- 비즈니스와 지역관광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위케이션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갖고 있음.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급과 수요관점에서 정리하고 세부적인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위케이션을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도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첫째, 위케이션이 트렌드로 부상하게 된 현황과 이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함
 - 둘째,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된 위케이션 프로그램과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케이션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추진 방안을 제시함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 기준
- 공간적 범위 : 전국

나. 대상적 범위

- 국내 : 위케이션 사업을 수행한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 해외 : 일본, 유럽 등에서 추진하는 민간·공공영역의 위케이션 정책

다. 연구 내용

- 위케이션 동향 및 주요 이슈
 - 위케이션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 위케이션 정책대상인 수요자·공급자 주요 이슈
- 국내외 위케이션 정책 및 추진사례
 - 국내에서 추진중인 위케이션 사례 및 사업 모델
 - 국외 위케이션 프로그램 추진 사례
-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
 -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 및 사례연구를 위한 문헌조사,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의견 조사 및 국내사례지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1〉 연구방법

구분		세부 내용
문헌 조사	선행연구-보고서	- 국내외 주요 근무제도, 비자정책 등에 대한 선행연구 및 보고서 검토
	정책 추진계획(안)	- 주요국 및 담당부처의 정책추진 계획(안) 수집 및 분석
	주요사업 실행계획서	- 국내 워케이션 세부 프로그램 분석
	주요 신문기사	- 국내외 워케이션 프로그램 사례,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조사	전문가 심층인터뷰	- 선행연구-주요사업 담당자와 심층인터뷰 실시 -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방안 발굴
	전문가 의견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조사
현장 조사	국내 주요 사례지	- 워케이션 관련 주요 사례지를 방문하여 현장답사 및 담당자 인터뷰

3. 연구 흐름도

〈표 1-2〉 연구흐름도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문헌조사
제2장 워케이션 동향 및 이슈 분석 : 원격근무,비자제도, 수요-공급자 이슈 분석	문헌·전문가 조사
제3장 워케이션 정책사례 분석 : 국내(공공·민간), 국외 워케이션 추진사례 분석	문헌·현장 조사
제4장 설문조사 분석 : 워케이션 정책방향 및 세부정책대안 평가	전문가 조사
제5장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방안	문헌·전문가 현장조사
제6장 결론 및 제언 : 연구결론 및 정책제언	전문가 자문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제2장

워케이션 동향 및 이슈 분석

제1절 워케이션 관련 논의

1. 워케이션의 등장배경

-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cation)의 개념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본에서 시작되었음(Yoshida, 2021). 이러한 개념은 2010년대 서구의 주요 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어졌음(Amano, 2018)
- 1990년대부터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이 널리 발전하게 되면서 일과 휴가 사이의 시간적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일하는 시간과 개인의 시간사이에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음(Pecsek, 2018). 미국이나 유럽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워케이션(Workcation)의 개념을 '휴일근무(Working on Holyday)'의 개념이 적용되었으며, 일과 휴가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었음(Yoshida, 2021)
- 일본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개념으로 워케이션을 해석하고 발전시켜왔음. 일본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법(2019)」이 시행되면서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실현'이라는 하나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면서 근무제도의 유연한 변화를 만들어 냈음. 또한, 워케이션 참가자들을 지역에 보냄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 서구의 디지털 노마드 행동이 일본에서의 워케이션과 다르게 발전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제시하고 있음. 첫째, 일본에서의 정책대상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속에는 다수의 참여자가 정책추구의 목적이 상호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만 했음(Yoshida, 2021)

- 지방정부는 지역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활을 통한 소비, 교류를 통해 관계인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과 관련이 없이 직원들을 외부로 보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 일본의 워케이션 정책은 지방정부, 참여기업과 근로자들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일과 휴가의 개념보다는 일과 커뮤니티, 혁신, 동기부여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

2. 워케이션 정의 및 유형

1) 워케이션에 대한 정의

- 워케이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가 미흡한 만큼 통일된 개념적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박효연, 2021)
- 다수의 연구자와 사전적 의미를 종합해볼 때, ICT기술의 발달로 원격근무 형태가 가능해지면서 일과 휴가라는 개념이 아니라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워케이션을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개념이 합성된 신조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휴가지에서의 근무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발표되고 있음

〈표 2-1〉 워케이션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Pecsek(2018)	- 워케이션은 레저와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관광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집을 떠나 업무와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Yoshida(2021)	-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것이 아닌 일과 소통, 혁신,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음
Matsushita(2021)	- 사무실을 떠나 일정기간동안 특정지역에 머무르면서 일하는 방식
박효연·황지영(2021)	- ICT의 발전으로 일과 개인/휴가 시간의 경계가 흐려진 현대사회의 흐름에서 생겨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지역에 머무르면서 비즈니스와 여행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는 하이브리드형 관광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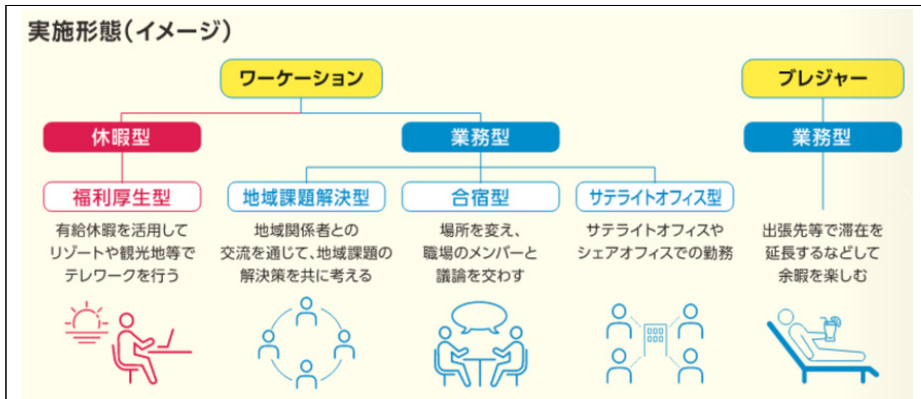
2) 원격근무·분산 오피스·공유 오피스의 개념

- 통상적으로 원격근무라 함은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일하는 근무의 형태를 의미함. 원격근무에 대한 법적정의는 없으며, 학계에서도 원격근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가운데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임
 - 김승남·주종웅(2014)에서는 원격근무에 대한 정의를 “일정한 직장에 고용된 임금 근로자가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직장과 연결 가능한 대안적 업무장소에서 일정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통근 거리 전체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근무 방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수준임
 - 이러한 원격근무의 대안장소가 자택일 경우에는 재택근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술적으로는 ‘직장을 제외한 주된 근무처가 가정인 원격근무 형태’를 의미하기도 함(Helling et al.,2001)
-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구분될 수 있음
 - 원격근무의 형태가 자택일 경우에는 ‘재택근무’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휴가지나 관광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형태를 ‘워케이션’이라고 언급함. 일반적으로 워케이션을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되어 통용되는 신조어라고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함
 - 또한, 본사나 재택근무가 아닌 ‘분산 오피스’의 개념은 유연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직원의 가정과 가까운 곳이나 주요 거점별 소규모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비슷한 말로는 ‘위성오피스’, ‘거점 오피스’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여기서 공유오피스와의 차이점은 여러 기업이 한 곳의 사무실을 공유하는 형태라면, 분산 오피스는 하나의 기업이 여러 곳에 사무실을 분산하는 형태를 의미함

3) 워케이션의 유형

- 일본 관광청에서는 워케이션의 유형을 크게 휴가형과 업무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휴가형에는 복리후생형, 업무형에는 지역과제해결형, 합숙형, 위성오피스형으로 나누고 있음. 또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와 레저를 합쳐 브레저라는 신조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음

[그림 2-1] 일본관광청의 워케이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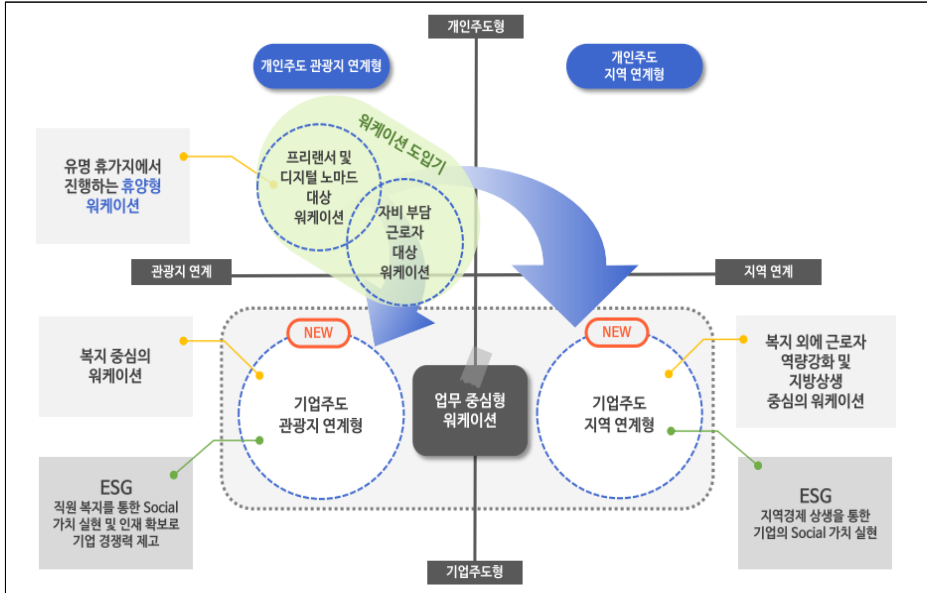


출처 : 일본관광청(<https://www.jnto.go.jp>) 웹사이트

- 휴가형-복리후생형은 유급휴가를 활용하여 관광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함
- 업무형-지역과제해결형은 지역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관광지 등에서 텔레워크가 가능하며, 지역과제의 해결책도 함께 생각하는 유형이며, 합숙형은 장소를 바꿔서 직장 동료들과 논의하는 유형, 마지막으로 위성오피스형은 위성오피스 또는 공유오피스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음
- 브레저-업무형은 출장지에서 체류, 시간을 연장하여 여가를 즐기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2021)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워케이션의 유형을 관광지와 지역과의 연계로 나누고,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서 개인주도형과 기업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개인주도 관광지 연계형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음

- 기업주도 관광지 연계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주도하여 관광지로 위케이션을 보내는 형태를 의미함. 이때 위케이션은 기업의 복지중심 모델로 제시하고 있음. 반면, 기업주도 지역연계형 위케이션은 복지 외 근로자 역량강화 및 지방상생 중심의 위케이션 모델로 유형을 정의하고 있음

[그림 2-2] 위케이션 유형 및 향후 발전방향



출처 : 한국관광공사(2021). 위케이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관광공사(2021)에서 제시한 위케이션 유형은 장소(지역·관광지)와 추진주체(개인·기업)의 개념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향후 한국형 위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주도형보다는 기업주도형으로 발전해야하며 업무중심형의 위케이션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역에서의 체험활동에 대해서 ESG활동과 연계하여 최근 기업 및 사회전반적인 이슈를 포괄하는 개념의 유형을 제시하였음

3. 비즈니스·지역관광관점의 워케이션 기대효과

- 워케이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비즈니스와 지역관광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재택근무의 생산성 향상, 창의력 개발의 기회, 직무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 마지막으로 근무혁신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지역관광의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음(박효연·황지영, 2021)
-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워케이션 효과를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한국은행(2020)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요인은 통근시간 절약, 업무 집중력 향상, 자율성 증대 등으로 직무 만족도가 증대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한편으로는 유기적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기회의 상실과 관리·감독에 투입되는 비용의 증가가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밝혔음. 재택근무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 다만, Ozimek(2020)에 따르면 적응기를 거쳐 업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음
 - 둘째로 워케이션을 통해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연속에 있는 것이 창의력이 있는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주장함(Tourism teacher, 2020)
 - 셋째로는 워케이션을 통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한국관광공사(2021)에 따르면 MZ세대 근로자에게는 업무에 비례하는 적절한 복지형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다수의 언론에서는 대기업 IT기업들이 워케이션을 실시하는 이유를 자율적 원격근무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직률을 낮추기 때문에 인재유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음
 - 마지막으로 직무만족도 향상에 따른 이직률 감소는 직원채용에 투입되는 잠재적인 채용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무공간 유지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한국은행, 2020)

- 지역관광 측면에서 워케이션 효과는 크게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로 나눌 수 있음
 - 장기간 워케이션 장소에 머물게 됨으로써 지역 및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교류인구 내지는 관계인구의 증대로 확장될 수 있음(Matsushita, 2021). 여기에 Amino(2018)에 주장에 따르면 인구소멸지역에서의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에서의 유희공간을 재생하고 이주정책의 일환으로 워케이션을 활용하여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마지막으로 워케이션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관광산업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호텔, 리조트 및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수요의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제2절 위케이션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

1. 원격근무제도의 확산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접촉이 제한된 가운데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택근무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음.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일하는 형태이며, ‘원격근무’는 주거지를 포함한 사무실 외부의 다양한 대체장소에서 ICT를 활용하여 근무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함(강민정·박선미, 2021)
- 위케이션은 원격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사무실의 대체장소가 관광지, 휴양지 등에서 업무수행을 인정하는 제도로 위케이션을 촉진시키는 기반으로 판단됨

가. 유럽

- 유럽의 원격근무는 EU의 텔레워크에 관한 기본협정(The European Framework Agreement on Telework, 2002)을 기반으로 국가별 노동법·노사관계 특성을 고려함 - 지식기반 산업체제로 경제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근로시간 및 장소가 유연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원격근무도 함께 발전하게 됨
- 유럽에서는 (1) 육아연계형 공유오피스¹⁾, (2) 고령친화적 생활·업무환경(SmartWork 프로젝트), (3) CITADEL Ecosystem²⁾, (4) 공공부문의 새로운 근무방식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원격근무형태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였음

1) 민간 스타트업 주도로 공공 보육시설과 협업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코워킹 오피스(공유오피스, 셰어오피스, 워크센터 등)의 형태로 활성화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최초의 육아기능 코워킹 스페이스인 ‘Third Door’를 제시하였음(강민정·박선미, 2021)

2) 업무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장소, 시간, 방식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블록체인 기반 업무관리시스템을 시범 적용함

나. 미국

- 「텔레워크 촉진법(2010)」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재택근무를 통해 노동력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연방정부의 핵심요소로 삼았으며, 기관은 업무 목표를 충족시키고 직원은 일과 삶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
-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서 원격근무제를 전담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제공, 성과관리, 성과보고서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음
- 미국은 (1) AWS(Alternative Workplace Solution)³⁾, (2) A New Workplace⁴⁾, (3) 민간부문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4) 원격근무 지원 포털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였음

다. 일본

- 국내여행과 여행소비액 성장도모를 위해 새로운 여행스타일 제도를 도입하였음. 일본 국내관광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기에 일제히 휴가를 취득함에 따라, 짧은 숙박 일수와 여행 수요가 특정 시기와 특정 장소에 집중되면서 지역내 혼잡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2020년도부터 기업(보내는 주체)과 지역(받는 주체)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업무 방식을 다양화 하는 텔레워크, 위케이션, 블레이저 등의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함으로써 잠재여행수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
- 위케이션의 실시형태는 획일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함. 기업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형태로 먼저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위케이션을 도입·용인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과제 해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AWS는 테네시 주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로 재택근무(work from home), 모바일근무(mobile work), 자유 좌석제(free address)형태로 공공기관에 시범 적용하였고, 2017년에는 주정부 23개 부서중 17개부서까지 원격근무를 확대시켰음

4) 유타주에서도 AWS에 적용한 3가지의 원격근무모형을 시범 적용(2018.09~2019.05)하여 참여한 근로자들이 목표성과를 달성하였음

- 새로운 여행 스타일 촉진사업은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일하는 방식 개혁과 함께 워케이션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함. 이를 위해 시범사업, 정보발신, 조사업무, 기업과 지역의 교류회를 실시하면서 지자체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음

라. 우리나라

1) 행정안전부 : 2011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

- 주거지·교통요지 인근에 IT 기반을 갖춘 복합 업무 공간으로 새로운 노동 형태로 주목 받은 스마트워크센터가 2015년까지 50개를 목표로함. 당초 목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지방 주요거점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힘
 - 스마트워크센터의 개념적 정의는 주거지·교통요지 인근에 마련된 IT 기반의 복합업무 공간으로서 센터에는 업무에 필요한 IT인프라(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공용컴퓨터, 보안성을 갖춘 전산망 등), 업무환경(독립된 사무용 책상, 회의실) 및 영상회의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함
 - 스마트워크 센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분산오피스의 개념임. 이러한 노후를 축적시켜 민간 기업의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공인 스마트 워크센터 인증방안도 제시함

2) 고용노동부 : 유연근무제 간접노동비 지원

- 고용노동부에서는 업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고용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소속 근무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케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시차출퇴근제는 6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 다른 제도는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인원은 전년 말 기준 피보험자 수 30% 한도 내 최대 70명이며,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까지 지원

〈표 2-2〉 유연근무제 종류

종류	내용
시차출퇴근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 조정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제	- 근무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이용하여 근무

출처 : 고용노동부. 일협동체 워라벨 홈페이지(worklife.kr)

3) 고용노동부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재택이나 원격 등 근무하는 장소와 시간이 유연한 근로환경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근무혁신시스템을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주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 50~80%까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표 2-3〉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시설

종류	지원금 내용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전용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유출방지, 자료백업 및 복구 등
서비스 사용료	웹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집(moel.go.kr/policy)

4) 중소벤처기업부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공급 기업 육성 및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분야를 제공하는 사업임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2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원격근무 환경 조성·제공을 통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효율적·생산적 메타버스 업무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메타버스를 활용한 원격근무 환경 조성으로 메타버스 인식 확산에 촉매제 역할을 유도하고, 원격근무와 지역의 휴양자원을 연계해 중소기업 복지증진,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
-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은 지역법인 3개소 지역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함
 - 수요기업 모집과 선정, 근무/거주 공간제공, 지역프로그램 연계, 운영 가이드라인 등 기획 및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 하에 추진되어야 함
 - 사업기간 동안 업무 및 주거시설 제공 가능 기관, 원격업무를 위한 공간 장비 및 주거 공간 등 사전에 조성이 완료된 경우가 해당됨

2. 디지털 노마드 유치를 위한 장기체류 비자 운영

가. 국외 사례

-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자국내 사회·경제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워케이션 트렌드를 촉진시켰다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격근무를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인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족을 유치하기 위해 장기체류 비자제도를 운영함
-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관광비자와 달리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며,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비자로 콘텐츠 제작자, 웹사이트 개발자, 소셜미디어 마케터, 디지털 기업가에게 적합함. 2022년을 기준으로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42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은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특정 월소득, 직업증빙, 일정 재산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면 장기 비자를 허용해주고 있음
- 모든 국가에서 장기체류비자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일정수준 소득이 있는 디지털 노마드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마련함

- 버뮤다(Bermuda) 관광청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 관광 및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예컨대, 휴가공간, 관광, 체험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전기차 렌탈 업무 지원, 인터넷 연결정보 제공 지원 등이며, 버뮤다 비즈니스 개발 지원청에서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의 비즈니스들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월스탑 컨시어지 서비스’를 표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유럽, 남미 및 태국 대만 등 동남아권역에서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하여 원격근무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수행해오고 있는데, 유럽은 세계적인 휴양지를 보유한 국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남미와 동남아 권역에서 디지털 노마드족을 유치하려는 비자정책을 수립하였음. 반면,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도 이들을 유치하려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 비자 가이드(visaguide.world)에서 소개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총 42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17개국, 버뮤다, 브라질 등 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16개국, 모리셔스, 남아프리카등을 포함한 아프리카 4개국에서 시행중임. 아시아는 총 5개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두바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표 2-4〉 디지털 노마드 비자운영 국가(예시)

구분	특징
버뮤다 (Bermuda)	- 버뮤다에서 도입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공식적인 명칭은 “Work from Bermuda Certificate”으로서 해외 원격 근로자가 1년 동안 버뮤다에 거주할 수 있는 체류허가증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아이슬란드 (Iceland)	-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한 다른 여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원격근무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 시장을 유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비자가 도입됨
코스타리카 (Costa Rica)	- 비자를 취득하면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연장되며, 월 소득의 증빙으로 발급이 가능함
노르웨이 (Norway)	- 스발바르섬에 거주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평생임

출처 : visaguide.world/digital-nomad-visa

나. 국내 사례

- 법무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외국인력 활용방안 (2021.7.7)’을 발표하면서 원격근무로 국외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IT·첨단기술 등 인재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원격근무자(Telecommuter)비자를 신설하기로 발표함
-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와 협업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뜻으로 관광정보 제공, 종사분야별 거주지 추천, 원격근무지 제공, 동종업계 협업 및 취업지원, 자녀 진학상담 및 배우자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제3절 워케이션 수요·공급자 이슈 분석

1. 수요자 이슈 분석

가. 정책추진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

- 최근 IT 대기업들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자율 원격근무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워케이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음. 앞서 언급한 워케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직무만족도 향상과 기업의 내부비용 절감이 예상되어짐
- 워케이션 근무에 대한 선호도는 보고서와 기업자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2021)는 국내 사무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워케이션의 참여의향은 68.2%에 달했으며,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호텔, 리조트, 콘도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해양휴양지에 대한 선호가 65.4%로 조사되었으며 가고싶은 목적지는 제주, 부산, 강릉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송미령 외 (2021)의 연구에서는 농촌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이용의사에 대해 전국 47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스마트워크의 유형으로 재택근무(75.3%), 모바일 오피스(48.1%), 스마트 오피스(47.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쾌적하고 자연환경·경관을 보유한 장소를 선호한다고 밝힘
 - 이영주(2021)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기간의 재택근무 경험이 직종별로 60% 이상이었으며, 본인 직무에 대한 스마트워크⁵⁾ 전환에 대해 60%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결과를 제시하였음

5) 스마트워크는 유연근무제, 모바일 오피스, 재택근무,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의 근무형태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됨

- 또한, 여기어때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워케이션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90.9%로 높았고, 에어비앤비에서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휴가와 같은 분위기를 즐기는 워케이션을 시도해볼 의향이 61%에 달한다고 밝힘. 잡코리아에서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에서 85.2%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나타남

- 직장인들은 산업별 근로형태, 기업규모에 따라 세분화시킬 수 있으며, 원격근무자와 IT 기업의 종사자 등을 워케이션 제도를 통한 수혜자라고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관광공사(2021)의 보고에 따르면 유효시장 규모를 약 51만 명으로 보았음. 이는 2020년 임금근로자 2,044만 명 중 원격 근무자 참여비율로 추정되는 2.5%에 해당됨

- 통계청 고용동향조사(2022. 9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는 2,768만 명이며, IT 업종을 포괄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는 122만 명(4.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물론 여기서 IT기업 종사자, 원격 근무경험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기업의 규모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대상자가 추산될 수 있음

- 서울산업진흥원은 강원관광재단, 어촌체험휴양마을,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과 함께 2022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음. 정책대상은 서울시내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었으며,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근로자들의 복지제도 형태로 접근한다면 정책대상은 확대될 수 있음

나. 워케이션 참여에 대한 국민 인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간 이동제한의 결과로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전환되면서 숙박시설의 고급화, IT대기업 홍보자료, 국내호텔 워케이션 특화상품에 대한 이미지 등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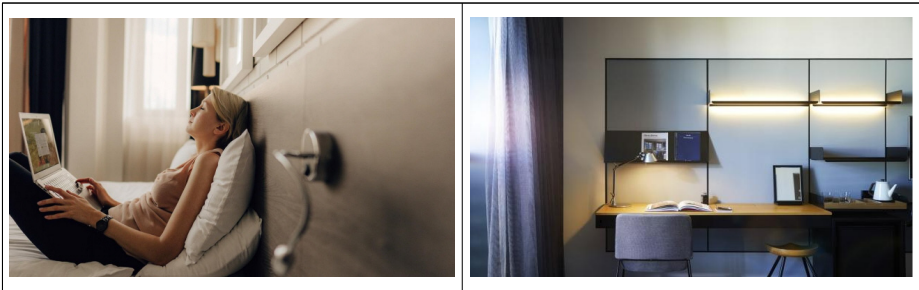
- 삼정KPMG(2021)에서는 해외여행 수요가 사라지고, 국내여행으로 전환하는 '유턴족'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면서 이들의 유형별로 세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시하였음.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관광공사(2022)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숙박형태가 대중화되었고 감성 숙소, 호캉스와 같은 고급숙박시설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음을 제시함

- IT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케이션 제도의 설명과 이미지가 배포되면서 국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케이션 상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대기업에서는 위성오피스, 자체보유 연수시설 및 계열사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워케이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워케이션 트렌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호텔에서는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음. 서울, 제주도에 소재한 호텔을 중심으로 오피스와 장기 체류형 숙박상품이 판매됨에 따라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형성됨

[그림 2-3] L사 워케이션 숙박중심 판매상품

[그림 2-4] G사 워케이션 오피스중심 판매상품



출처 : 각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의 이미지

다. 수요자측 비용부담에 관한 이슈

- 수요자측은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행위를 원격근무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강력한 기업복지 및 기업문화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비용부담은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2021b)에서는 디지털노마드, MZ세대, 가족형으로 구분하여 표적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집단에서는 사내 복지의 형태로 참여하고 회사의 비용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한국관광공사(2021a)에서도 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개인이 부담

- 하는 체류비용에 대해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앞서 워케이션은 직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유럽과 미국에서는 워케이션을 보는 시각이 유연근무제도로 보기 때문에 개인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복지와 업무명령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음

2. 공급자 이슈 분석

가. 원격근무·워케이션에 대한 관리직군의 부정적 인식

- 원격근무는 장소에 따라서 재택근무와 워케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음. 향후 원격근무에 대한 확장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워케이션에 적합한 업무, 인재유치, ESG와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
 - 한국은행(2020)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산업혁명 이후 유지되었던 근무형태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기업은 재택근무에 대한 활용범위를 넓혀나가고 최적의 조합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업과 직무에 따라 적용유무가 존재할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서 등장하는 디지털 노마드족과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은 IT 계열의 종사자로 원격근무 형태인 워케이션에 적합한 업종으로 보고 있음.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되며 창의력 향상과 이에 맞는 업무가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음(Tourism teacher, 2020.12)
 -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복지차원에서의 도입을 통해 내부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특히 MZ세대에게는 좋은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함(한국관광공사, 2021b), 이는 다수의 언론에서도 워케이션 도입의 긍정적 측면으로 보도⁶⁾되고 있음. 또한,

6) 이데일리(2022.10.19). “MZ세대 취향에 ‘딱!’…원격근무 늘리는 기업들[워케이션 열풍②]”, 뉴시스(2022.7.10). “[워케이션 떠나는 기업들] 지속 가능할까…일·휴식 구분해야 vs 선택권 확대 환영”, 조선 Biz(2022.10.26). “[지방이 다시 뚝다]② CJ ENM이 제주에 직원 120명 보낸 이유는… ‘워케이션’이 지방경제 살려”

지역연계프로그램에 ESG활동을 도입하여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맞춰가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에 있어서는 업무 효율성, 형평성, 비용 등에 대한 저해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안의 마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원격근무와 같은 업무형태는 구성원간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줄어들게 되고 이를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경영진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에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각 주체에 대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기도 함(한국은행, 2020). 또한, 재택근무는 주인·대리인에 관한 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근무태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음
 - 기업 내부에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있으며, 모든 직원들의 원격근무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부직원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한국관광공사, 2021b)
 - 워케이션 도입을 통한 사무실 유지공간 비용의 감소, 이직률 감소에 따른 경영상 비용측면이 절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반하여 새로운 사무공간 조성 또는 임대,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투입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로 제시될 수 있음

나. IT 대기업의 다목적 수단으로 도입

-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IT 대기업은 내부 자원을 바탕으로 워케이션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음. 이러한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독특한 IT 대기업 문화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음
 - IT기업들의 재택 및 자율출퇴근제 도입은 경기 위축 조짐에 따라 개발자의 인건비 상승률을 억제시키고, 이에 대한 보상대안으로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일본에서 추진하고 지역과제 해결형 워케이션은 사회적책임경영과 ESG와 연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향후 기업이미지 및 기업가치 향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한국관광공사, 2022). 이는 국내 대기업에서도 기업의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창의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험적 단계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일과 삶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부합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와 더불어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이데일리, 2022.10.19)
- 워케이션 도입에 대한 기업의 니즈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남
 - 대기업은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대외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경제 상생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인재확보가 수월해진다면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음(한국관광공사, 2021b)
 - 결국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목적은 인재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등 성과가 필요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음

다. 원격근무에 대한 생산성 하락 요인

-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택근무가 확산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의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개인, 기업 및 정부 등의 참여를 독려했고 IT 기술혁신이 결합되면서 확산되었음
 - 원격근무는 개인에게는 통근시간을 아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도심 직장과의 근접성이 덜 중요해짐에 따라 거주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재확보, 직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무공간 유지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하였음

- 한국은행(2020)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강제적인 재택근무가 경영진과 직원의 인식을 개선시켰고,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기대이상의 재택근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음
- 다만, 재택근무가 확산되더라도 상시 재택근무보다는 하이브리드형⁷⁾ 재택근무가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

- 한국은행(2020)은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및 저하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표 2-5〉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생산성 이슈

구분	세부내용
향상요인	① (개인) 통근시간의 절약, 업무 집중력 향상, 자율성 증대 등으로 직무 만족도 증대 → 직원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지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생산성과 기업이윤이 증가함(LSE, 19.7월) ② (기업) 고용관련 비용의 절감효과 → 거리제약 완화로 인한 우수인력 확보 기회 증가, 이·퇴직률 하락은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됨(Clancy, 2020)
저하요인	① (직원) 구성원 간 유기적 의사소통이 줄고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 → 구성원 간 대면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존 직원은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특히 신입직원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 ② (경영진) 관리·감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재택근무는 각 주체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됨 → 재택근무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심화시켜 근무태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는 직원관리에 대한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Bonet·Salvador, 2017)

출처 : 한국은행(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쟁정과 평가)”를 바탕으로 저자 요약

- 최근 사회적 트렌드로 제시되고 있는 워케이션에 대한 기업의 인식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이슈가 제시됨
 - 박효연·황지영(2021)의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기업문화와 근태위주의 평가제도로 인해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율적 업무 실행의 문화가 보편화된다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시함
 - 종합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업무의 비효율에 관한 우려가 크며 특히 원격근무 시 소통과 근태관리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함(한국관광공사, 2021)

7) 하이브리드형은 재택, 기존 사무실, 원격 사무실 등을 유연하게 활용. 각 기업은 모든 기업에 맞는 (one-size-fits-all) 근무형태 대신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최적조합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한국은행, 2020)

라. 기업의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이슈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유연근무제 유형인 원격근무는 주거지에서의 근무를 의미하며, 본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워케이션은 근무지가 관광지 또는 휴양지라는 점에서 비용부담의 이슈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이미 조성비용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워케이션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IT 대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연수원, 회의실, 분산오피스(혹은 위성오피스)를 이용하거나 인력확보를 위해 신규 투자의 여력이 있겠지만,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부담이 있음(한국관광공사, 2021)
 - 또한, 보수적인 기업문화에서는 근무자가 휴가지 또는 관광지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음
 -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한 2022년 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중소기업의 복지 확대 개념으로 접근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같이 일부 비용을 지원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복지격차 감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관적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이직률 감소 등을 목적으로 시행함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전 세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시간, 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었음. 코로나19의 확산은 국내외 원격근무제도의 도입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본에서 시작되었음(Yoshida, 2021).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지가 분산오피스, 자택이 아닌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개념임
 - 워케이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비즈니스와 지역관광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재택근무의 생산성 향상, 창의력 개발의 기회, 직무만족도 향상 및 이직률 감소, 마지막으로 근무혁신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지역관광의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제시하였음(박효연·황지영, 2021)
- 워케이션의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원격근무제도 확산 및 장기체류 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2018)」을 추진하면서 일본 ‘텔레워크협회’를 중심으로 원격근무를 활용해 저출산·고령화·지역인구 감소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원격근무 인식캠페인, 원격근무 컨설팅사업, 위성사무실, 워케이션, 텔레큐브(1인용 사무공간)의 정책방안을 추진하였음
 - 통상적으로 I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지 제약조건이 자유로운 사

람들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족이라 부르며, 이들은 해안과 인접한 휴양지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들이 소개되었음. 유럽과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42개의 국가에서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해줌으로써 이들의 유입을 촉진시키려는 외국인 체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원격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2022년 하반기에 원격근무자 비자 신설계획,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조성 등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위케이션의 다양한 사례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되면서 관심과 기대가 형성되었음. 호텔과 리조트사업체는 이러한 수요에 즉각 반응한 상품을 판매하고, IT대기업은 자체 연수원·지사를 이용하여 인재 확보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음. 공공영역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중견·중소기업, 국내 자유로운 원격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자면 수요자와 공급자측면에서 다음의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음

〈표 2-6〉 재택근무 활성화에 따른 생산성 이슈

구분	세부내용
수요자 이슈	① (정책추진 대상과 범위의 모호성) 다수의 조사에 따르면 위케이션 선호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의 수준에서는 정책의 대상범위와 규모를 규정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없음 ② (위케이션 참여에 대한 국민인식)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호텔·리조트상품, 휴양지에서의 홍보성 사진이 관광지 원격근무, 즉 위케이션에 대한 인식형성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 ③ (수요자 부담비용) 위케이션 프로그램 참여행위를 근무의 일환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의 일부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부담비용의 문제는 참여의 제약요인임
공급자 이슈	① (관리직군의 부정적 인식) 위케이션의 긍정적인 효과도 인정하고 있으나 업무효율성, 형평성, 추가부담 비용과 관련한 저해요인이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안마련 필요 ② (IT 대기업의 다목적 수단으로 도입) IT 대기업은 인재유치, 기업이미지와 기업가치 향상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업무특성이 상이한 기업까지 보편화시키기 위한 대안 필요 ③ (원격근무에 대한 생산성 하락) 원격근무(재택근무 관점)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소통의 감소에 따른 학습기회가 상실되고, 관리·감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④ (기업 추가비용 부담) 추가적인 분산 오피스, 공유 오피스의 활용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직원의 위케이션 참여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음

2. 시사점

1) 워케이션에 필요한 근무·숙소에 대한 환경조성 필요

- 사무공간은 분사 혹은 공유 오피스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광역·기초 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역 또는 사업체 단위에서 환경을 조성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지역에서 운영하는 숙박공간에서는 청결성을 위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하며, 체류기간 동안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마련될 수 있어야 함

2) 광역·기초지자체 중심의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인구고령화, 지역인구 감소 등은 국가적인 이슈이며,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종합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역할분담,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 종합적인 방향수립을 위해 중앙부처가 함께 관계부처 장관회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추진하고, 광역간·기초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의 공유, 특화지역 발굴 등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필요

3) 지역중심·주민주도형 워케이션 대상지 조성 필요

- 현재 워케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도심의 호텔·리조트, 공공주도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하며, 지역중심,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조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모델 발굴이 필요함
- 행안부의 청년마을, 문체부의 관광두레와 같은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와 관광벤처 사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지역개발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파급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4)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중간지원 기능 확보

- 위케이션의 트렌드가 생산성에 관한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존재하고는 있으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 기업단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이를 연계해줄 수 있는 중간 지원 기능 및 조직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5) 홍보를 통한 종합적인 인식전환 계기 마련

-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위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상반되고 있으며, 일부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접하는 정보가 실질적 위케이션 참여의 목적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기업 임원·관리직,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캠페인 전개활동을 통해서 휴가지 원격근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휴가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며, 공급자에게는 사무공간, 숙박시설에 조성 및 활용, 운영 등에 대한 매뉴얼 작성, 사례공유 등의 활동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위케이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성과확산 및 홍보가 필요함

6) 이해관계자간 비용분담 구조마련을 통한 활성화 계기 마련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사무공간 마련, 참여자 비용지원 등과 같이 금전지출에 대한 부담도 존재하며, 근로자들은 위케이션을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과 상반될 수 있음. 업무 개념으로 개인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부담요인으로 발생하여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근무와 관련된 지원사업, 광역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특별회계와 더불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소멸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지자체-기업 간 참가비 매칭을 통해 정책의 마중물 역할도 고려해볼 수 있음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제3장

워케이션 추진 사례 분석

제1절 사례분석 개요

- 위케이션은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이며, 유럽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음. 일본은 국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개인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음. 국내에서 위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발전방식으로 추진되었기에 유럽과 일본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위케이션 추진정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로 부처의 역할, 활동내역, 정책추진을 위해 실시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며, 유럽의 사례는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심의 사례를 파악해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여 지역을 조성하고,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발전시켰으며,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기업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또한, 우리나라보다 2~3년 정도 빠르게 추진하였기에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위케이션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유럽은 특정업체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리조트를 중심으로 디지털 노마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기체류 비자를 신설하는 방식이며, 자국의 국민에 대한 국가정책은 확인할 수 없었음
- 국내에서도 실시한 위케이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역·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 추진방식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함
 - 국내에서 추진한 위케이션 모델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요 기관, 지자체 및 민간기업에서 시행한 위케이션 공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현장 답사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였음

제2절 국외 위케이션 정책분석

1. 일본 : 위케이션 정책 및 지역사례

1.1 일본 위케이션 정책추진 현황

가. 「새로운 여행 스타일」 검토를 위한 위원회 설치

- ① 일본 국내여행과 여행소비액 성장도모(여행기회 창출·평일 관광수요 확대)
 - 일본 국내관광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기에 일제히 휴가를 취득함에 따라, 짧은 숙박 일수와 여행 수요가 특정 시기와 특정 장소에 집중되면서 지역내 혼잡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2020년도부터 기업(보내는 주체)과 지역(받는 주체)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업무 방식을 다양화 하는 텔레워크, 위케이션, 블레이저 등의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함으로써 잠재여행수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② 「새로운 여행 스타일」의 보급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부처협력 위원회 구성
 - 관광청은 전문가, 정부관계부처, 경제계, 관광관련업계 등의 다양한 관계자로 구성된 ‘새로운 여행스타일’에 관한 검토위원회 설치. 사무국은 관광청 국제관광부 국제관광과(MICE 추진실) 및 참사관(여행진흥)이 담당하고 있음
 - 연간 1~2회 ‘새로운 여행스타일’에 관한 검토위원회의를 통해 관련정부부처와 지자체 사례발표 및 전문가 의견교환, 연관 단체 간의 의견교환 실시함. 2020년부터 현재(2022년 10월)까지 총 6회의 검토위원회 개최됨
 - 해당 위원회에는 관광청을 비롯하여 내각부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총무성 ‘텔레워크 활성화’, 우수기업 표창, 후생노동성 ‘인재확보 지원금’, 환경성 ‘국립

공원 위케이션 추진사업', 농림수산성 '농박추진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위케이션 활성화 위한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있음

③ 위케이션을 활용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

- 위케이션의 실시형태는 획일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함. 기업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형태로 먼저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위케이션을 도입·용인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통해 기업의 과제 해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함

나. 2020 「새로운 여행 스타일」 활동

- 일본 관광청은 2020년부터 「새로운 여행 스타일」의 보급과 촉진을 위해 기업, 지역, 관광·경제단체, 관련 중앙부처와 연계하면서 단계적인 활동을 실시함

〈표 3-1〉 2020 새로운 여행스타일 사업내역

(1단계) 조사·실적 구축사업	(2단계) 보급·개발 단계사업
- (기업 모델구축) 10~12개사, 회사별 약 20명의 사원을 대상으로, 위케이션의 효과(채용직원의 업무의 육과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활동 전개	- (정보발신 프로모션) 일하는 방식 혁명과 유급휴가 취득, 새로운 여행 스타일 촉진에 관한 기업과 국민 대상의 프로모션 실시 및 분위기 형성(미디어 활용, 캠페인 실시 등) 활동
- (실태조사) 국내기업에 대한 제도 도입현황과 기존의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실시형태를 5개 유형(리조트워크형(복리후생형), 팀빌딩형, 인재육성·과제해결형, 세틀라이트오피스형, 브레저형)으로 구분함	- (보급팜플렛 작성) 기업에 도움이 되는 노동재해, 세무처리등 옹이한 제도 설명 및 도입관련 정보 팜플렛 제작, 지역 대상의 위케이션과 블레저 등에 대한 장점과 지역에 요구되는 환경정비에 관한 정보 팜플렛 제작으로 구분됨
	- (기업대상 전국 세미나) 기업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위케이션과 블레저 도입을 위한 검토를 유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출처 : 일본 관광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다. 관광청의 위케이션 체험을 통한 주변지역 시찰 및 텔레워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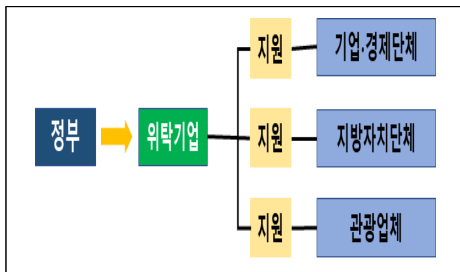
- 관광청 직원들은 직접 위케이션 체험을 통한 지역과의 의견교환과 과제도출을 위해 홋카이도 도야코쵸(北海道 洞爺湖町)를 방문함
 - 지역에서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게 되고, 유치기업이 장래 지역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감으로 참여함

- 일본관광청은 위케이션을 체험함으로써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음
 - 여행에 일을 들여오겠다는 발상이 아니라, 장기 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휴가 획득의 용이성과 휴가에 대한 직장과의 의식 함양이 요구되며, 위케이션 자체에 소요되는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직장 내 의식의 공통화나 프로모션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함
 - 해당 기업의 요구 파악이나 대응, 기업 유치에 관한 PR·매칭이 중요하며, 행정 부서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조직들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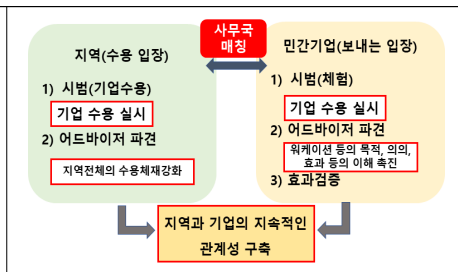
라. 2021 「새로운 여행 스타일 촉진사업」

- 일본 관광 스타일은 특정 시기의 휴가 취득과 숙박 일수가 짧으며, 관광 소비액을 성장시키는 것이 과제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휴가 취득 분산화를 위해, 체류형의 「새로운 여행의 스타일」 보급이 필요하였음
- 일하는 방식 개혁과도 동일한 위케이션 등의 「새로운 여행의 스타일」을 보급해 여행 기획의 창출과 관광 수요의 평준화를 도모함
 - 휴가 취득이나 분산화에 연결되는 위케이션이나 워싱오피스, 블레저 등의 보급을 위해 기업과 지역, 관광업계 등과 연계하면서 기업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델사업이나 정보발신 등을 실시하였음
- 기업과 근로자 상호간 혜택이 부여된 형태로 경제단체와도 제휴하여 추진하였으며 지역의 활성화와 연결을 중요시 판단함

[그림 2-5] 지역-기업 모델개념도(2021)



[그림 2-6] 지역과 기업관계도(2021)



출처 : 観光庁(2021), 「新たな旅のスタイル」促進事業 (中間報告)

마. 2022 「새로운 여행 스타일 촉진사업」 확대

- 제6차 「새로운 여행 스타일」 검토를 위한 위원회에서는 조사, 시범사업, 정보발신, 기업·지역간 교류회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였음(2022.3.17)

〈표 3-2〉 2022 새로운 여행스타일 촉진사업

시범사업	정보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40개의 기업·지역을 매칭하고 기업에는 제도 도입촉진과 효과검증, 지역에는 수용환경 정비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파견, 기업의 제도도입, 지역 수용체재정비를 위한 조언, 지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종업원(이용자), 지역이 가지는 이점 보급을 위한 정보발신 실시 ① Web 광고 ② 기업대상의 온라인 세미나 ③ Web 사이트 콘텐츠 확충 ④ SNS로 정보발신
조사업무	기업·지역의 교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케이션 정착을 위한 현상과 과제도출, 각종 데이터의 변화 확인을 목적으로 Web 조사 실시 ① 기업 ② 종업원 ③ 모델 기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역이 운영 및 추진상황 공유(교류회) - 타 지역간·타기업간 교류회를 통해 각자의 사례및 노하우에 대한 정보교환
검토위원회	

관계 성청과 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금후 위케이션 추진을 위한 방향성 검토

자료 : 觀光庁(2022), 今年度事業の結果報告, 令和4年3月17日/ <https://www.mlit.go.jp/kankocho/content/001477419.pdf>

① 위케이션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결과

- 위케이션 정착을 위한 현상과 과제를 도출하고 각종 데이터의 변화 확인을 목적으로, 기업(n=600), 종사원(n=2,000), 모델 기업(n=20), 모델 지역(n=20)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3〉 기업 및 종사원 대상의 위케이션 현황조사 결과(2021년도와 2022년도 비교)

대상	조사내용	결과 ('21 → '22)
기업	텔레워크·위케이션 도입률/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워크 도입률 38.3%→38.0% • 기업의 위케이션 인지도 48.5%→66.0% • 위케이션 도입률 3.3%→5.3%
	텔레워크 실시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소: 재택근무 97.1%→91.3% • 증가: 모바일워크 14.7%→21.0%, 세틀라이트 오피스 이용 8.8%→10.7% 렌탈 오피스 이용 2.9%→8.7%
	텔레워크 실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소: 신형 코로나 대책으로 활용 95.6%→85.3% • 증가: 우수인재확보 26.5%→30.2%, 경비절감 2.9% → 16.3% 교통경비절감 6.6%→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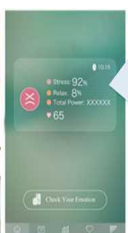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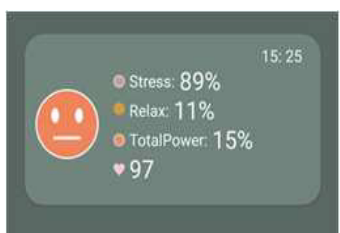
대상	조사내용	결과 ('21 → '22)
	워케이션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형(49.8%)이 가장 많음 • 증가: 지역과제해결형 21.5%→28.2%, 세틀라이트오피스 22.0%→26.2%
	실제 도입한 워케이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리후생형(66.7% → 46.9%)이 가장 많음 • 증가: 지역과제해결형(22.2% → 40.6%)이 대폭 증가
	워케이션 미도입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업종이 아님(60.5%), 일과 휴가 구분 어려움(20.5%), 효과없음(16.3%)
중 사 원	텔레워크·워케이션 도입률/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워크 경험률 32.2% → 33.0% • 종사원의 워케이션 인지도 79.1% → 80.5% • 워케이션 경험률 4.3% → 4.2%
	텔레워크 실시경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택 이외 장소에서 텔레워크 실시(21.9%)
	텔레워크 실시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레쉬 효과(36.5%), 일한 장소는 상관없음(30.2%), 일하는 방식 개혁추진(28.8%), 워크 라이프 추진(28.4%)
	워케이션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경험자 : 릴렉스/리플레쉬 등 기분전환 요소에 대한 기대가 높음 • 경험자 : 업무효율과 일의 질 향상, Skill Up 등의 기대가 높음
	흥미 없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54.2%) • 증가: 휴가와 여행 중에 일하고 싶지 않다(34.2%), 효율이 떨어진다(14.4%)

자료: 観光庁(2022), 今年度事業の結果報告, 令和4年3月17日 / <https://www.mlit.go.jp/kankochou/content/001477419.pdf>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정리

② 워케이션 시범사업 추진 및 효과평가

- 각 40개의 기업과 지역을 선정하여 매칭하고, 워케이션의 기업 도입촉진과 효과검증 및 지역 수용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함(예: ANA 그룹)
 - (시범사업) 40개 기업 선정, 시범지역에서 기획한 워케이션 체험 프로그램 3회 참여. 시범기업은 매회 5명이 참여하여 자사 도입기회를 검토함
 - (지역 측 실시주체) 지자체, DMO, 관광협회, 민간단체·기업 등 참여함
 - (효과측정) 전용 웨어러블 단말기를 착용하여 심박변동 등의 바이탈 데이터를 측정하여 워케이션 스트레스, 릴렉스 정도와 집중도를 평가함
 - (전문가 파견사업) 관광청 파견전문가가 워케이션 컨설팅 3회 실시하였음

〈표 3-4〉 시범사업 참가기업 및 종사원 대상 조사내용 요약(2021년도와 2022년도 비교)

조사내용		결과 ('21 → '22)
시범 기업 대상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120회 중, 102회 실시(실시율 85%)(코로나 감염으로 18회 중지) 참여자의 종합만족도 92.4% 참가기업의 성과 실감(85.0%) : 효과 큼(35.0%) + 다소 성과(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과 지역이 깊은 사전적 상호이해가 필요 있음 - 웨케이션이 종래의 관광여행과는 다른 형태라는 지역의 이해가 필요함
	추후 웨케이션 추진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후 추진 의향: 72.5% - 반드시 추진 32.5%, 가능한 추진 40.0% 증가 : 모바일워크(14.7%→21.0%), 세틀라이트 오피스(8.8%→10.7%), 렌탈 오피스(2.9%→8.7%) 이용
	웨케이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활성화에 대한 인식향상(40.0%), 리플레쉬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 착상(17.5%), 다양한 일하는 방식 제공(12.5%), 사원끼리의 일체감 양성(12.5%)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리후생형(49.8%)이 가장 많음 증가: 지역과제해결형(21.5%→28.2%), 세틀라이트오피스(22.0%→26.2%)
참가 자 대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기화(의욕, 만족도(마음으로부터 충족감), 쾌적성(스트레스 부담 감소), 창조성(독자적 발상)이 웨케이션 참가시 개선됨
	피하센서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분을 오픈한 상태가 되는 경향 맥파의 흔들림 상승은 커뮤니케이션 의욕 향상시킴, 웨케이션에 의한 팀빌딩에 긍정적 효과 획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심박변동 데이터 측정	<p>첫날과 비교해 집중도 향상, 스트레스 감소(부교감 신경이 높아지는) 경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자료: 観光庁(2022), 今年度事業の結果報告, 令和4年3月17日 / <https://www.mlit.go.jp/kankochu/content/001477419.pdf>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표 3-5〉 참가기업 및 지역간 인터뷰 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기업이 인지하는 모델사업 효과로는 사원 만족도와 팀빌딩을 위한 효과성을 실감하고 지역과의 연계, 지방상생 및 사업영역확대 가능성을 인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등 환경이 좋은 장소에서의 근무는 리프레쉬 집중 효과, 사원만족도 향상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못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일체감 향상 - 지역과제 해결형 워크업을 통해 지역체험과 지역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계기와 함께 상호간 우호적 관계 및 기업전문성을 활용한 문제해결 가능성 파악 ■ 참가기업이 인지하는 워크업 추진과제로는 워크업 실시목적의 명확화와 그에 따른 사내 규정 정비, 기업과 지역의 상호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 제도 도입에 앞서 취업규칙, 출장규정 등 직원이 일하는 방식과 장소 등 사내규정개선이 최우선 과제를 인식함 - 단발적 참여로는 지역과의 충분한 대화시간이 부족하여 2회 이상의 기회확대를 통해 의견조정, 개선 및 기업과 지역의 상호간 이해하는 기회가 중요함 ■ 참가지역은 기업의 요구, 관계자에 대한 워크업 효과인식의 기회가 있었으며 워크업의 추진상의 문제 및 과제가 명확화 되었다는 것을 인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의 성과인식과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 기업과 지역의 목적이 상호 부합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고 기업의 지속적 참여요인이 중요함을 인식함 - 지역은 기업이 참여하는 워크업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하드웨어 에 대한 정비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함 - 안정적인 통신환경과 네트워크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직무공간 제공 등 하드웨어 개보수를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기업의 워크업 추진이나 지역에서 할수 있는 활동,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간에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함 - 워크업은 지역에서 관계인구 창출, 평일 비수기 대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내에서도 이에 대한 상호간 이해가 달라 지역내의 합의형성이 필요함

③ 기업·지역 교류회 주요 결과

- 시범기업과 시범지역이 워크업 운영 개요 및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 의견을 조정하고 정리함

〈표 3-6〉 기업·지역 교류회 시사점

기업측 의견	지역측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원 사이에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 -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연계 가능함 - 자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병행된다면 이용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 지역에서의 B2C에 대한 접근 필요 - 현지역 기업과의 적극적인 B2B 추진

④ 관광청 홍보사업 내용

- (Web 광고) 웨케이션 인지도 확대, 참여를 위한 동영상 전달 실시
- (기업대상 세미나) 웨케이션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강연·토론
- (콘텐츠) 해설동영상, 동행취재, 지역정보 제작 등 콘텐츠 제작·배포
- (SNS)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의 주요정보 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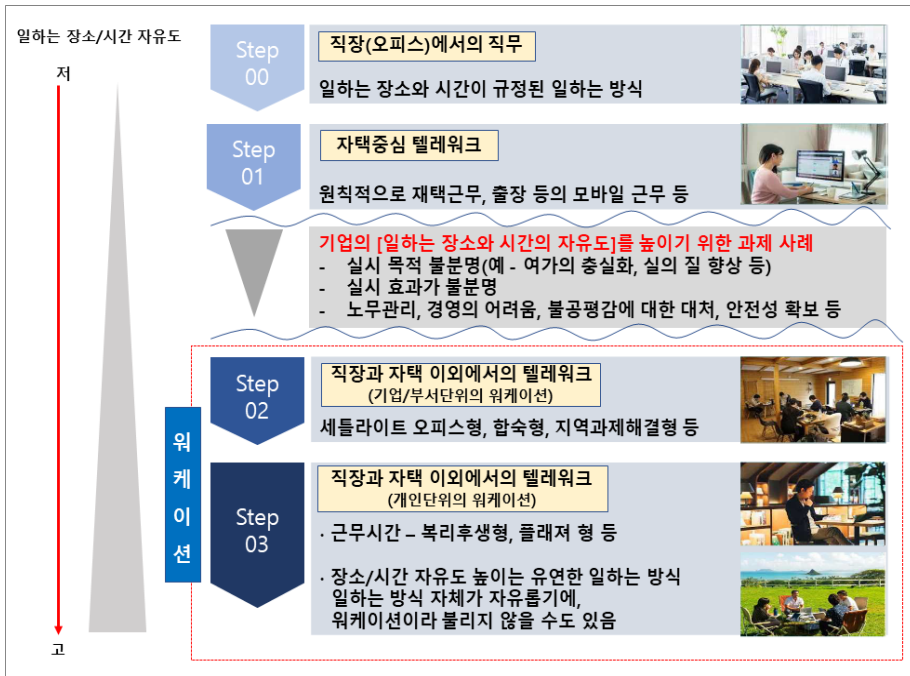
⑤ 웨케이션 추진을 통한 장점 파악

- 「새로운 여행 스타일」 위원회의 5차회의(2021)에서는 웨케이션 장점을 요약함

〈표 3-7〉 기업·지역 교류회 시사점

원격근무 도입의 효과	지역상생과 SDG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의 질, 동기부여 및 창의력 향상 - 혁신 및 신규사업 창출에 대한 기여도 높음 - 인재채용과 인재확보의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케이션은 지방상생을 위한 중요한 수단로 부각됨 - 글로벌 관심과 함께 ESG를 추구하는 기업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수단으로 활용함

[그림 2-7] 일반형 웨케이션 추진방향



자료: (観光庁(2022), 今年度事業の結果報告, 令和4年3月17日 / <https://www.mlit.go.jp/kankochu/content/001477419.pdf>)

1.2 일본 워케이션 지역사례

가. 와카야마현의 워케이션⁸⁾

- 워케이션은 휴가, 기업은 혁신, 개인은 동기부여, 지역은 협력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였음
 - 워케이션 추진목적은 관계인구를 창출하는 것으로 경제활성화, 워케이션 관련 비즈니스 창출,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하며 기업유치를 추진하였음
- 와카야마현은 2017년부터 전국 지자체중 선도적으로 워케이션 활동을 개시하면서 기업대상으로 추진하여 2017~2019년간 104개사 910명의 방문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었음
-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워케이션은 와카야마라는 브랜드 확립을 위해 「Wakayama Workation Networks⁹⁾」를 구성하고 워케이션 코디네이터, 숙박시설, 사무공간과 관광활동으로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워케이션 코디네이터는 기업상담, 계획수립, 예약수배 및 동행을 실시함
 - 텔레워크의 불편함이 없도록 무료 Wi-fi, 사무관련 기기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내 호텔, 여관, 민박,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함
 - 워케이션 참가자에게 인터넷 사무기기 제공과 함께 회의실, 카페 등 제공
 - 지역내의 체험과 관광 투어 등 워케이션 참가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구성하며, 자원봉사, 기업시찰, 지역사업자 등과의 의견교환, 농작물 사냥 등 체험, 관광안내, 트래킹, 사이클, 관광시설, 온천 등의 입욕시설, 특산점을 운영함
- 와카야마현의 코디네이터에 속하는 그룹은 여행사, (주) JTB, 워케이션 센터, 농촌교류센터, DMO, 숙박전문 여행사 등이 코디네이터에 참가하고 있음

8) 와카야마현(2020), 와카야마현의 워케이션 활동, 제1회「새로운 여행 스타일」검토 위원회의 회의자료 (20201023)

和歌山県(2020). 和歌山県におけるワーケーションの取組み, <https://www.mlit.go.jp/kankochu/content/001369249.pdf>

와카야마현(2020), 와카야마현 및 워케이션 지자체협의회 2020년도 사업보고

和歌山県(2020). 和歌山県及びワーケーション自治体協議会 令和2年度事業報告, 제2회「새로운 여행 스타일」검토 위원회의 회의자료(20200205). <https://www.mlit.go.jp/kankochu/content/001369249.pdf>

9) 와카야마현 (2020.01.24.) Wakayama Workation Networks

나. 오이타현 벳부시(大分県 別府市) : 휴양형

- 기업과 온천지역을 매칭하여 온천지 방문을 통해 지역상생에 공헌하고 업무의 활동은 주로 심신건강, 헬스케어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였음
 - 온천·식사·온천약초 사우나 등을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과 함께 요가와 트래킹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역 사업자나 지자체와의 제휴 통한 헬스케어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상생을 도모함
-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합숙형 워케이션을 지향하고 있으며 연수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추진중에 있음

다. 홋카이도 후라노시(北海道 富良野市) : 합숙형

- 입사 2년차 사원연수에 워케이션을 활용하면서 환경문제와 지역과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코로나로 교류 적은 동기와의 동료 의식 양성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실천에 도전함
 - 환경·SDGs 교육, 워크숍 통한 주민과의 환경 및 지역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음
 - 코로나19로 교류가 어려웠던 입사 멤버 간의 일체감을 회복시키고 돈독한 유대 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워케이션을 실시하였음
 - 여행지에서의 원격근무 장점과 만족한 내용들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함

라.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福岡県 福岡市) : 지역과제 해결형

- 도시형 워케이션 형태로 동경도 IT 벤처 기업이 후쿠오카시 중심부와 교외 지역 두 곳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함. 통상적인 업무와 함께 중심부에서는 시내 기업과 교류하고 교외로 이동하면 시가지마의 료칸이나 리조트호텔에 체류함
 - 직무에 따라서 1주일 이상도 체류가 가능하며 현지 기업과의 긴밀한 유대로 친밀감을 높게 되었으며 후쿠오카시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었음

- 후쿠오카시의 워케이션 코디네이터는 민간 사업체인 (주) HOnPro가 담당하고 있으며, 노무사출신, 식품개발경영, IT 온라인교육, 인사재무담당 등의 전문분야를 보유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워프패스(Work friendly pass)를 구매한 회원에 한해서는 관광시설, 시내교통, 공유 오피스, 회원한정 연수프로그램 등 비즈니스 혜택을 제공함

[그림 3-1] 후쿠오카시의 비즈니스 매칭 상담 흐름도 및 코디네이터 (주) HOnPro



자료: 후쿠오카시 워케이션 포탈 사이트 <https://workation-fukuoka.jp/>

2. 유럽 :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례

가. 마데이라(Madeira) 포르투갈

- 마데이라는 북대서양 포르투갈령 마데이라 제도에 위치한 섬으로 면적은 801km²(거제도 2배 규모), 인구 약 26만 명 정도의 유명 관광지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급감한 관광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폰타 두 솔(Ponta do Sol) 마을에 세계 최초의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실행됨
- 마데이라 섬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도 디지털 노마드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관련 기업인 NomadX에 따르면 2021년 개장 이후 이 지역에 3,000만 유로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였음. 마데이라 제도에는 폰타 두 솔 이외에 포르토 산토(Porto Santo) 등 4개 지역이 더 개발되어 홍보를 추진중임

1)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폰타 두 솔(Digital Nomad Village Ponta do Sol)

- 2020년부터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 하나인 마테이라섬 남쪽에 위치한 인구 8,000명 정도의 마을인 폰타 도 솔에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 원격 근무 컨설턴트인 곤살로 홀은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기 위한 거점으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마테이라 지방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시작되었음
 - 마테이라 지방 정부,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 스타트업 마테이라(Startup Madeira)¹⁰⁾와 곤살로 홀(Gonçalo Hall)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함. 곤살로 홀은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공동체 조성 및 컨설팅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포르투갈 스타트업 기업인 NomadX의 대표임
-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폰타 도 솔 프로젝트의 핵심은 해외에서 방문한 원격근무자가 쉽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여가 및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윈스톱 서비스를 운영중임
 - 2021년 2월부터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 폰타 도 솔이 공식적으로 개장하였음
 - 빌리지에 체류하는 원격근무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상호 교류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무료 업무공간인 존 도 파소스 문화센터(John do Passos Cultural Center)가 개관하여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업무와 사회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
 - 폰타 두 솔에서 판매하는 객실상품은 21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1달기준)로 판매되고 있음. 포르토 산토의 1달 객실상품은 125만원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음
- 빌리지에 체류하는 원격근무자들에게는 호텔, 단독주택, 공동숙소 등의 선택지가 있으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가, 명상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마테이라섬 곳곳을 탐방할 수 있는 관광활동을 제공함
 - 빌리지에 체류하는 원격근무자들과 지역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 및 실행하였음

10) 마테이라제도의 공식 홈페이지를 스타트업 마테이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
(<https://digitalnomads.startupmadeira.eu/>)

[그림 3-2] Ponta do sol

[그림 3-3] Porto Santo



출처 : 스타트업 마테이라 홈페이지(<https://digitalnomads.startupmadeira.eu/>)

나. 자다르(Zadar) 크로아티아

- 자다르시는 크로아티아의 중부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로 알려져 있으며 아름다운 해변, 수산시장, 해산물 등으로 유명함. 도시에 항구뿐 아니라 공항도 위치해 있어 유럽 전역에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 디지털 노마드 밸리(Digital Nomad Valley)

-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급감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로아티아에서는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인 자다르에 디지털 노마드로 불리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디지털 노마드 마을을 조성함. 공식명칭은 디지털 노마드 밸리(Digital Nomad Valley)임
- 디지털 노마드 밸리는 자다르 시내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해변에 위치해 있으며 팔켄슈타이너 프리미엄 캠핑 자다르(Falkensteiner Premium Camping Zadar)로 불리는 모바일 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음
 - 해당 마을에는 모바일 하우스, 공공와이파이, 공유오피스공간 등을 지니고 있으며, 커뮤니티 매니저가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를 제공함
 - 원격근무자의 동반자(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는 할인 금액이 적용됨

- Falkensteiner Premium Camping Zadar는 고급형 캠프를 지향하며 다양한 옵션을 지닌 숙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주일 임대료는 숙소의 크기에 따라 상이함(스튜디오 임대료 350유로, 약 50만원)

[그림 3-4] 공유 오피스

[그림 3-5] 커뮤니티 행사

[그림 3-6] 마을 전경



출처 : 디지털 노마드 벨리 공식홈페이지(<https://www.workremotelycroatia.com/>)

① 크로아티아(자그레브) 디지털 노마드 확산을 위한 홍보 프로젝트

- 해외 디지털 노마드를 위해 매력적인 도시로 홍보하고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진행함
 -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전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총 6명의 해외 디지털 노마드들을 선정하여 자그레브로 초청해서 1개월 동안 무료로 거주하고 홍보를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함
 - 숙소는 무료이지만 자그레브까지의 교통비(항공요금)는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함
- 디지털 노마드 앰배서더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유업무, 관광 활동참여, 자그레브에서의 디지털 노마드 경험을 홍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
 - 자그레브에서의 디지털 노마드 경험에 대한 홍보는 크로아티아 뉴스 웹사이트, 자그레브 관광청과 그들이 보유한 SNS를 통해 이루어짐
- 총 6개월 동안 6인의 앰배서더 활동을 통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도시로서 자그레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피드백을 얻게 되는 동시에 자그레브를 전 세계의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② 디지털 노마드 위크(Digital Nomad Week)

- 자그레브 디지털 노마드 위크는 2021년 6월21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이벤트로서 7일 동안 7개의 주제를 가지고 강연 및 토론이 이루어지는 행사임
 - 행사주간에 일별로 이루어지는 개별 세션은 자그레브의 카페, 공유오피스, 바, 레스토랑 등에서 개최됨
- 디지털 노마드 위크 세션은 디지털 노마드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거나 혹은 직접 대면으로 행사장에 참석할 수도 있음
 - 2021년 디지털 노마드 위크 기간에 다루어진 주제는 사이버 안전, 원격을 통한 커리어, 세금&재무, 일의 미래, 웰빙, 자그레브 탐험을 포함하고 있음

다. 피파(Pipa) 브라질

- 피파(Pipa)시는 브라질 북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휴양도시로서 북반구가 겨울인 시기에 3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날씨와 해안 경관을 주 매력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임

1) 노마드 빌리지 브라질(Nomad Village Brazil)

- 노마드 빌리지 브라질은 포르투갈 스타트업 회사인 NomadX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해외 원격근무자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브라질 북동부 해안 마을인 피파시의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를 조성함
 - 브라질은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 북반구가 겨울에 접어드는 시기에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의 추위를 피해 방문하는 북반구의 여행자들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디지털 노마드 시장 또한 연계해서 공략하려 함
 - NomadX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섬 폰타도솔(Ponta do Sol)에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를 조성한 민간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 프로젝트의 주체는 민간기업이지만 프로젝트의 진행에 있어 지방정부 및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음

- 노마드 빌리지 브라질은 피파시의 해변에 위치한 모라다 도스 벤토스(Morada dos Ventos) 게스트 하우스를 리모델링하여 해외에서 방문하는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험적 프로젝트임
 - 프로젝트는 약 6개월간(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23일) 진행되며 계절적으로 유럽과 북미가 겨울이고 남반구인 브라질은 여름에 해당되는 기간임
- 브라질 사업의 주체인 NomadX가 피파의 강점으로 홍보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빠른 인터넷 속도, 마을내 숙박시설, 유럽과의 이동시간 및 시간대(Time Zone), 다양한 레스토랑, 서핑을 포함한 스포츠활동, 공항과의 인접성, 이국적인 분위기 등을 홍보함

[그림 3-7] 리조트 전경



[그림 3-8] 스포츠 활동



출처 : 스타트업 마데이라 홈페이지(<https://digitalnomads.startupmadeira.eu/>)

라. HeadQuarter Village 이탈리아

- HQ Village는 이탈리아의 민간기업으로서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과 협력하여 디지털 노마드로 불리는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 지방 정부 및 마을의 개별 부동산 소유자들과 함께 기반 시설 구축 및 주택 재생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 디지털화 그리고 장소의 진정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원격근무자,

기업 및 디지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비즈니스 및 개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 HQ Village는 크게 4개의 이해관계집단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마을)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기 원하는 개별 마을들을 고객으로 하여 이러한 마을들이 지닌 다양한 자산들을 외부에 홍보하고 디지털 노마드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방향으로 개발을 지원함
 - (마을 자산 소유자) 자신이 지닌 주택과 상점들과 같은 자산을 디지털 노마드의 숙박 및 편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
 - (기업) 원격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원격근무공간으로서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들을 연결시키고 직원들이 해당 마을에서 만족할 만한 근무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
 - (디지털 노마드) 마을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러 편의와 관광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직원들은 상기한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과 특기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직원들의 핵심 역량 및 전공은 건축, 생물학, 도시설계, 비즈니스 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경영 등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디지털 원격근무라는 새로운 서비스 환경에 대한 기업, 마을, 주민, 직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3절 국내 워케이션 추진사례

1. 공공기관 주도형 워케이션 모델

가. 강원도 관광재단 워케이션 특화상품

-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원격근무를 시행하게 되었음. 일본에서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근무형태가 유행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다양한 워케이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참가자격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전문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의 리조트를 중심으로 숙박과 업무를 진행하며, 지역체험과 ESG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형성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음
- 강원도 관광재단은 기업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와 전문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같은 개인단위의 희망자를 참가시킴으로써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기여함
 - 2022년도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서울진흥원과 야놀자·CJ·인터파크 등과 같은 주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워케이션 근로자의 참여율을 제고시켰음
 - 워케이션 프로그램 대상지의 조건을 살펴보면 사무공간 여부, 교통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희망자는 지역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광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였음

〈표 3-8〉 강원도 관광재단 워케이션 판매상품

구분	영월	양양	태백	삼척
1인 1실 숙박	탐스텐 동강시스타 에코빌리지	더앤리조트 양양슬로스킵	태백 오투리조트 구소문 힐링캠프	삼척 씨스포빌
공유오피스	숙소별 지정장소 또는 인근 카페 등			
식사	조식제공			
주요 체험프로그램	지역체험, ESG 프로그램			
운영기간	06.07(화) ~ 07.15(금)		9.20(화) ~ 10.28(금)	

자료 : 강원도 관광재단 워케이션 홈페이지(worcation.co.kr)를 바탕으로 정리

나. 서울산업진흥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인 서울산업 진흥원은 근로의욕 제고와 근무여건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
 - 기업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신청하고, 내부적으로 선정된 직원이 일정과 지역을 선택하여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상반기에는 강원도 관광재단과 협업하였고, 하반기에는 제주도, 국립공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업을 확대하면서 범위를 확대하였음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은 일부 참여비용을 지원함

〈표 3-9〉 서울산업진흥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구분	영월·양양	삼척·태백	제주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1인 1실 숙박	(영월) 동강시스타, 에코빌리지 (양양) 더앤리조트 양양슬로스킵	(태백) 오투리조트, 구소문 힐링캠프 (삼척) 씨스포빌	호텔 또는 펜션	호텔, 펜션, 글램핑/카라반
공유오피스	숙소별 지정장소 또는 인근 카페 등			
식사제공	조식 제공	조식 제공	조식 미제공	조식 제공
주요 체험프로그램	지역체험, ESG 프로그램		자율선택	어촌 및 갯벌체험
운영기간	6.7(화) ~ 7.15(금)	09.27(화)~11.18(금)	09.27(화)~12.16(금)	09.27(화)~12.16(금)
비고	강원관광재단과 협업			

자료 : 서울산업진흥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공고문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다. 한국관광공사 워케이션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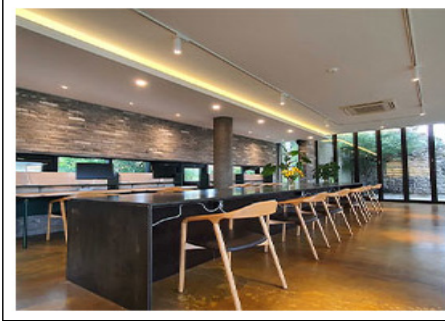
- 한국관광공사는 티몬, 휴넷 등 14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사업은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하였음
 - 타 기관과 다르게 임직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제주, 강릉, 부산, 속초 등 희망지역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사무공간 또는 공유오피스를 마련하여 근무환경을 제공하였음
- 평일에는 해당 지자체의 숙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과 후나 주말에는 해당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음.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체류 및 활동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은 원격근무를 통한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음

2. 지자체 주도형 워케이션 모델

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촉진과 업무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21~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워케이션 워크 랩스(Island Work Labs)라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 2021년 사업에서는 서귀포시에 공유 오피스(코워킹 스페이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사무기기 지원, 온라인 미팅을 위한 별도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숙박비(1인 1일 3만원)를 지원하였음. 파일럿 사업의 형태로 수도권 26개사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음
 - 올해의 사업에서는 공유오피스를 기존 서귀포시와 함께 제주시를 추가하여 확대운영하였으며, 인근 숙박시설과의 제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는 숙박시설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음. 2차년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B2G사업의 형태로 전환하면서 6주 동안 65명의 임직원들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그림 3-9] 제주시 공유오피스



[그림 3-10] 서귀포시 공유오피스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investjeju.or.kr)

나. 경상남도 하동군

- 하동군은 2021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직장인 체류형 위케이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위케이션 참가자는 개인단위로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3박 4일동안 숙박비 전액과 하동군의 문화예술 체험, 농어촌 체험, 관광지 입장료 등 체험비가 1인 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였음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동군의 드라마 촬영지에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통해서 유희시설 및 노후숙박시설을 활용하여 한옥호텔인 청송재를 조성할 계획임
 - 기존 한옥문화관 인근에 한옥 숙박동 2채를 신축하고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면서 위케이션 공유 오피스를 조성하여 2023년 말에 개관을 예정함

다. 제주특별자치도 질그랭이 위케이션센터

- 세화마을 협동조합은 지역의 현안으로 삼고 있는 청장년층의 이·탈농, 이주민 유입,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공동체 의식과 결속력이 저하되고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음
 -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의 결속력과 지역에서의 수익창출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센터내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2019년 477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2022년의 조합

원 규모는 약 500명으로 증가하였음. 조합을 설립하고 난 이후 마을 향약정비, 정관개정, 센터 구축의 시간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조합원은 500명으로 지역인원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났음

- 조합내 센터는 PD급 1명이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7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직원들은 마을내 주민의 자녀들로 지역인력으로 운영됨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은 지역사회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거점 센터를 조성하고, 조합원들의 활동 거점, 지역 소통을 위한 장소, 방문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의 창출공간임

- 센터의 공간적 구성은 대회의실(60명 규모), 중규모의 워크숍 및 강연공간(50명 규모), 소규모 회의공간(20명 규모)과 더불어 4종의 객실타입을 갖춘 객실로 구성되어 있음. 객실은 1인실에서 대규모 8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조성함으로써 숙박관광을 유도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지역숙소와 연계함으로써 부족한 객실수용력을 보완하고 있음

- 센터내 위치한 카페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한 로컬푸드 제품을 판매하고, 카페에서는 음료와 제빵제품을 판매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함. 또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워크ेशन 참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나타내었음

- 지역의 생활자원을 관광상품화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마을여행사를 별도로 설립하였으며, 해녀, 오름, 밭담 등의 자원을 테마별 전문 주민해설사가 동행하여 관광객들과 교류하고 있음. 또한, 인근 마을의 관광상품 및 코스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지역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 지역내 인프라 보수, 인건비 등과 관련된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지원사업으로 일부 부담하고 있으며 수익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제주관광공사는 지역사업의 대외 홍보를 지원하며, 관광벤처기업인 스트리밍 하우스와 협력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라. 충청남도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

-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충청남도·서천군과 함께 한산면에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를 조성하였음. 도시청년들이 인구유출로 고민하는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와 지역 상생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함
 - 지역의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20년에 숙박공간으로 변경하였고, 삶기술학교 출신 청년들을 위한 거주 숙박공간이 부족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한달살이 임시거주지와 관광객들의 숙박공간으로 활용됨
 - 삶기술학교는 빈집을 고쳐 숙소로 사용하고 모시와 소곡주를 비롯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도함. 학생들은 정착할 공간이 부족했고, 지역공동체장과 함께 호텔 리모델링을 시작했으며 ‘한산호텔H’를 조성하게 되었음
- 서천군은 행안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유림회관 리모델링과 한산 디지털노마드센터가 건립되었음. 앞서 조성된 ‘한산호텔H’와 연계하여 전통 모시산업에 기반을 둔 지역이 새로운 지역으로 지역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함
 - 디지털노마드 센터 1층은 스마트 공유 사무실, 2층은 디자인실, 미디어실 등 작업공간에 영상과 음악 등 멀티미디어 제작과 화상회의 장비를 설치함. 디지털노마드 센터로 인해 한산면 마을 전역에 공공 무선 인터넷망이 설치되었음
 - 디지털노마드 센터에서는 기업을 유치하여 평일에는 위케이션을 온 직장인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한산호텔H와 인근 숙소를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제조되던 ‘한산 소곡주’를 주민과 지역 청년들이 협력하여 온라인 판매·유통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한 농업회사법인 ‘슬로커’를 창업하였으며 2021년 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음. 또한, 위케이션 관광객들에게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체험프로그램으로 제공함
- 한산지역은 행안부의 지원으로 ‘한산호텔H’ 숙박시설과 디지털 노마드 센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사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 참가자를 유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정된 기업에 1인당 50만원 상당의 바우처인 호텔별 1인 1실 숙박, 지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음

3. 민간주도형 워케이션 모델

가. 대기업 자체재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추진

- IT기업과 대기업들은 개발자 채용의 어려움과 우수 인력유치를 위해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임
 - 대기업들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 분산 오피스 등을 이용하여 워케이션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일부 기업들은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내 추첨을 통해 진행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도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력 양극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보조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표 3-10〉 주요 IT 대기업 워케이션 제도

회사명	세부내용
네이버	- 매주 10명의 직원을 추첨하여 강원도 춘천 분산 오피스와 일본 도쿄지사에서 4박 5일 근무
카카오	- 제주첨단 과학기술단지내 위치한 본사에 워케이션 센터 건립
배달의 민족	- 2023년부터 모든 직원에게 원격근무를 허용하고 광·몰디브에서도 허용함
티몬	- 50명의 직원에게 제주, 남해, 부산 등 4박 5일의 근무 허용(한국관광공사 연계)
롯데멤버스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 부산 속초 근무자를 추첨하여 지원(계열사 리조트·호텔 연계)
CJ ENM	- 제주에 거점 오피스를 구축하고 직원에게는 월 200만원까지 지원하면서 근무제도 실험
한화생명	- 계열사 호텔인 한화 호텔엔리조트의 브리드호텔을 이용하여 근무를 허용

자료 : 워케이션 관련 기사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재구성

나. 특급호텔 자체상품 기획 및 판매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원격근무 확산으로 자체적으로 상품을 출시하였음

〈표 3-11〉 주요 호텔 워케이션 상품

기업명	상품명	세부구성	비고
롯데호텔-리조트	Work & Life	기간별 상품구성(1박·3박·7박)	
하얏트호텔-리조트	Home Office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객실 제공	일일 오피스
Glad Hotel	호텔로 출근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객실 제공	일일 오피스 및 숙박
제주신화월드	제주 한달 살기	일주일 단위 상품, 취사·세탁시설	여행·휴식 컨셉
제주 글래드 호텔	한달 제주 생활	장기 투숙상품 출시	여행·휴식 컨셉
신라스테이	한 달 살기	장기 투숙상품 출시	
켄싱턴 호텔	호텔 한 달 살기	한달 숙박상품, 조식제공, 세탁라운지	장기투숙상품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일본의 워케이션 추진정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로 부처의 역할, 활동 내역, 정책추진을 위해 실시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며, 유럽의 사례는 국가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중심의 사례를 파악해볼 수 있음
- 국외사례로는 아시아지역의 워케이션 모델을 도입하게 된 일본, 이보다 앞서 디지털 노마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브라질, 이탈리아 사례를 정리함으로써 추진목표와 운영특징을 확인함
 - 일본의 워케이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라는 환경변화와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 개혁(2018)」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경직된 근로환경, 휴가사용 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응책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도입하였음. 현재는 조직단위로 워케이션 활동에 참가하면서 직원과 사용자간 발생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평일에 지역방문을 통해 식음료, 관광, 숙박 소비의 계기를 마련함. 일본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도로 사업을 추진시켰음. 뿐만 아니라 휴양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중임
 -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한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브라질과 이탈리아는 디지털 노마드족을 유치하기 위해서 휴양지내 리조트 시설에 외국인 IT 노동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민간 사업자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수요를 창출하였음. 유럽지역의 특징은 고속인터넷 접속환경 구축, 대상지와의 우수한 접근성, 유명휴양지와 지역내 관광상품을 연계하였음. 또한, 앞서 언급한 정부의 비자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IT 종사자들의 체류조건을 완화하였음. 사례로 제시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한달

체류의 숙박비가 150만~2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역을 조성하는 주체가 전문기업이라는 점이며, 특히 이탈리아의 사례인 HQ Village는 지역, 주민, 지자체, 참가자의 개념을 도입해 이해관계자간 역할을 명확히 제시함

- 위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공, 지자체, 민간의 영역에서 다양한 위케이션 상품이 나타나게 되었음. 추진주체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되며, 차이점을 확인하였음
 - 공공기관주도형으로 제시한 사례에서는 지역의 호텔·리조트에 숙박하고 공유오피스를 조성하여 위케이션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업무종료 후에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일부 상품에서는 공공기관·기업·지역이 상품비용을 분담하고 일부 체류비용은 개인부담 구조임
 - 지역의 사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공모를 통해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고 지역숙박시설과의 제휴를 통해 숙박비를 절감시켜주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하동군에서는 한달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별로 신청하고 숙박비 전액과 체험비의 일부를 지원함. 추후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사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 제주도 질그랭이 위케이션 센터와 한산 디지털노마드 센터는 지역민이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음. 먼저 질그랭이 센터의 추진주체는 마을협동조합이며, 제주관광공사에서 PD를 선정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지역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공간조성과 인건비 지원이 있었음. 또한, 관광벤처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제주관광공사는 전략적으로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에 노출됨. 한산 디지털 노마드센터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지역으로 유입된 청년들과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서천군과 행정안전부의 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호텔과 공유오피스 공간을 구축함. 지역에서 주도한 위케이션 프로그램의 특징은 사업의 주체가 지역주민 또는 거주자가 직접 기획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역지원사업으로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위케이션 수요에 대응함
 - 대기업은 우수인력 유치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사가 보유한 분산 오피스, 연수원 등을 활용함. 또한 특급호텔과 리조트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근무가 도입되자 자체적으로 위케이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음

2. 시사점

1) 정부·기업·지역에서의 공동대응을 통한 사업모델 구축 필요

-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 기본방향은 각 부처의 설립 목적과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합의된 사회적 문제를 규정하고 공동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를 단기·중기·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립함으로써 정부는 기업과 국민을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원격근무가 가속화되었고 인구소멸지역에 정부재정의 투입계기가 마련됨.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성과확산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협의체계 구성이 필요함

2) 업무공간 환경구축을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가이드 마련

- 워케이션은 기본적인 관광활동의 구성요소에서 업무공간이 필수적으로 조성되어야 함. 지역에서는 공유 오피스 등과 같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카페 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음
 - 워케이션은 업무를 위해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여가 휴식·체험프로그램을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형 관광모델임. 기존 관광모델은 관광체험·식음료·숙박시설과 같은 요소를 관광객의 선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합했으나 워케이션은 업무공간이 필수적임
 - 지역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유오피스를 신규로 조성하거나 지역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으나 업무공간의 표준화는 개인별·업무별 편차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시설기준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지역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3) 지역과의 밀착연계를 통한 지역소득 파급효과 확대

- 사무공간은 분사 혹은 공유 오피스와 같은 형태로 업무를 위한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밀착형 오피스 구축을 통해 다양한 소비활동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4) 중간매개조직이 참여한 이해관계자간 역할분담 필요

- 위케이션 정책현황과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이해관계자 유형을 정리하면 근로자, 기업, 지자체, 주민과 중앙정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개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역할구분이 필요한 상황임
 - 일본에서의 대부분 위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코디네이터를 두고 지역주민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과 지역의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컨설팅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함
 - 또한,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지역 위케이션 사업체가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제안함

5) 위케이션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내외 인식전환 캠페인 추진

- 보수적인 우리나라의 근로문화에서 유연한 근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업 임원과 인사부문 직원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홍보자료, 기업 세미나, SNS 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태위주 업무평가제도를 지양하고 성과중심의 업무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기업과 직원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함. 아직까지 위케이션 장소에서의 업무와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홍보를 추진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제4장

전문가 조사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조화된 조사표를 개발하여 관광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14일에 걸쳐 해당 분야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하였음
 - 조사의 주요 목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민간주도의 위케이션 프로그램의 파급력 검토, 공급부문(인프라, 정보, 정책지원)과 수요부문(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2. 조사 대상 및 항목

- 조사의 대상은 학계·지역연구기관 및 공공부문 사업담당자들로 선정함
 - 위케이션 관련 연구경험자, 사업을 담당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담당자 30명을 선별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표 4-1〉 조사 개요

구분	세부내용
조사기간 / 조사대상	2022년 10월 31일 ~ 11월 14일 / 관광분야 전문가 및 사업담당자
표집방법	판단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
조사표본 / 방법	30부 (관광전문가 20부, 사업담당자 10부) 배포 / 온라인 조사
조사내용	- 공공·민간 주도 프로그램에 대한 파급력 평가 - 공급부문 정책대안 평가 : 인프라, 정보구축, 정책지원 영역 - 수요부문 정책대안 평가 : 프로그램 개발, 홍보

제2절 조사분석 결과

1. 2022년 위케이션 추진사업 설명

가. 공공주도 위케이션 프로그램

- 2022년 국내에서 추진했던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련기관의 공고문과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2년 강원도 관광재단 위케이션 프로그램				
□ 자격조건 : 4대 보합에 가입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구분	영월	양양	태백	삼척
1인 1실 숙박	합스텐 동강시스타 에코빌리지	더에리조트 양양솔로스킵	태백 오투리조트 구소문 힐링캠프	삼척 씨스포빌
공유오피스	숙소별 지정장소 또는 인근 카페 등			
식사	조식제공			
주요 체험프로그램	지역체험, ESG 프로그램			
운영기간	06.07(화) ~ 07.15(금)		9.20(화) ~ 10.28(금)	
개인참가비	280,000원			
※ 가족동반가능, 개별 필수 근무시간은 소속회사와 상의				
2022년 서울산업진흥원 위케이션 프로그램				
□ (사업목적) 서울 중소기업 제작자 근로의욕 제고, 근무여건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주차별 3박4일(화~금) 숙박, 사무공간, 체험프로그램 등 종합 위케이션 프로그램 제공 ※ 기업이 프로그램참여를 신청하고, 개인이 일정/지역을 선택				
구분	영월·양양	삼척·태백	제주도	어촌체험 휴양마을
1인 1실 숙박	(영월) 동강시스타, 에코빌리지 (양양) 더에리조트 양양솔로스킵	(태백) 오투리조트, 구소문 힐링캠프 (삼척) 씨스포빌	호텔 또는 펜션	호텔 펜션 글램핑/카라반
공유오피스	숙소별 지정장소 또는 인근 카페 등			
식사제공	조식 제공	조식 제공	조식 미제공	조식 제공
주요 체험프로그램	지역체험, ESG 프로그램	지역체험, ESG 프로그램	자율선택	어촌 및 갯벌체험
운영기간	6.7(화) ~ 7.15(금)	09.27(화)~11.18(금)	09.27(화)~12.16(금)	09.27(화)~12.16(금)
기업부담금	80,000원	40,000원~80,000원	100,000원	80,000원
비고	강원관광재단과 협업			
2022년 한국관광공사 위케이션 시범사업				
□ (사업목적) 근로자 복지증진과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 지역체류				
□ (사업내용) 티몬·휴넷 등 11개 기업 직원이 참여하여 강릉, 남해, 부산, 속초, 양양, 전주, 제주, 평창에서 호텔 등 지역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지역 공유오피스 원격근무				
□ (지원내용) 숙박예약, 세부 프로그램, 체험비용 일부 지원, 기업 평일근무 인정				

나. 민간주도 위케이션 상품

- 민간 대기업에 실시한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자료 및 신문기사를 통해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위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수인재 유치때문으로 보도(한국경제, 7.18)
- 워라벨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이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

네이버 : 매주 10명의 직원을 초청하여 강원도 춘천 및 일본도쿄에서 4박 5일 근무
카카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위치한 본사에 위케이션 센터 건립 예정(8.11 기사)
라인플러스 : 일본 · 대만 · 태국 · 싱가포르로 근무지 확대 (체류기간 90일 한계)
배달의 민족 : 2023년부터 모든 직원 광·몰디브 원격근무 허용
티몬 : 50명 직원에 한해 제주, 남해, 부산 4박 5일 근무 허용 (스트리밍하우스 연계)
롯데멤버스 : 월~목요일까지 제주, 부산, 속초 근무자를 초청 (계열사 리조트·호텔)
CJENM : 제주 거점오피스를 구축하고 위케이션근무를 실현(지원금 月 200만원)
한화생명 : 강원도 양양근무 허용 (양양브리드 호텔 원격근무지)

2. 정책대안별 중요성-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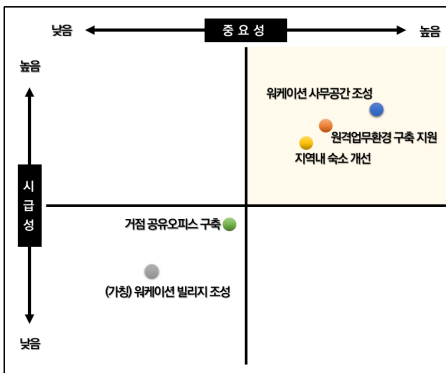
-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서 공급자 수요자 관점으로 나누고 요구되는 정책추진의 영역에 대해서 공급부문은 인프라, 정보구축, 정책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요부문에서는 프로그램과 홍보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전문가 평가결과에 따르면 수요측면에서 프로그램 개발, 홍보영역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프라, 정보구축, 정책지원 영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요부문의 세부항목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급측면에서는 위케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지원, 정보구축, 정책지원의 순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나타났음
 - 다음 표는 항목별 평균값을 제시하였으며 중요성의 종합평균값은 3.98이며 시급성은 3.75로 평가되었음

〈표 4-2〉 공급·수요부문 워케이션 활성화 정책대안별 중요성-시급성 평가

구분			중요성			시급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국민 수요 부문	인프라	1.지역내 숙소 개선	3.95	4.12	4.33	3.79	3.95	4.27
		2.워케이션 사무공간 조성			4.57			4.57
		3.원격업무환경 구축 지원			4.40			4.43
		4.거점 공유오피스 구축			3.93			3.59
		5.(가칭)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3.37			2.90
	정보구축	1.표준모델 가이드 제작	3.95	3.86	3.83	3.79	3.83	4.07
		2.워케이션 대상지 정보구축			4.23			4.10
		3.워케이션 현황 모니터링 실시			3.97			4.03
		4.워케이션 대상지 인증사업			3.40			3.14
	정책지원	1.광역/기초자치단체 협의회 구성	3.95	3.85	3.53	3.80	3.60	3.17
		2.지역관광진흥조직 협의체 구성			3.50			3.23
		3.범부처간 워케이션 협의체 구성			3.80			3.47
		4.주민주도 워케이션 사업체 발굴			4.07			3.97
		5.법·제도적 지원			4.33			4.17
	프로그램	1.워케이션 세부상품 개발	4.05	4.14	4.17	3.80	3.88	4.17
2.워케이션 기업지원 사업 추진		4.27			4.10			
3.지자체·기업간 협약모델 개발		4.30			4.00			
4.워케이션 비자 지원프로그램 개발		3.83			3.27			
홍보		1.워케이션 예약·홍보 플랫폼 구축	4.05	3.95	4.03	3.80	3.72	3.97
		2.국내외 홍보사업 추진			3.90			3.97
		3.워케이션 인식전환 캠페인			4.27			3.93
		4.워케이션 우수기업·지자체 시상			3.60			3.00

-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4사분면으로 제시하였음
 - 인프라영역에는 지역내 숙소개선, 사무공간 조성, 원격업무환경 구축지원, 거점 공유오피스 구축, (가칭)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을 대안으로 구성하였음. 중요성과 시급성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항목은 '지역내 숙소개선', '워케이션 사무공간 조성', '원격업무환경 구축 지원' 으로 나타났음. 반면 아직까지 중요성도 낮고 시급성이 낮은 항목은 '거점 공유오피스 구축', '(가칭)워케이션 빌리지 구축' 임
 - 정보구축 부문의 영역에서는 '워케이션 대상지 정보구축' 항목이 시급하고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표준모델 가이드 제작' 및 '워케이션 현황 모니터링 실시' 항목은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영역으로 나타났음. 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직접적인 영향력은 다소 낮지만,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대상지 인증사업'은 정책사업으로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4-1] 인프라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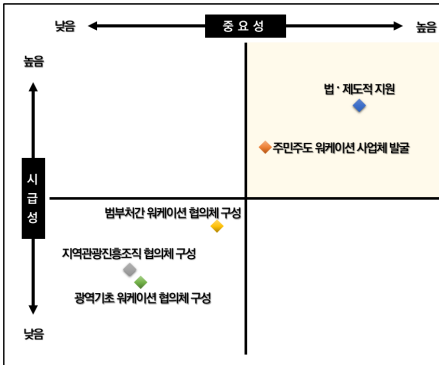
[그림 4-2] 정부구축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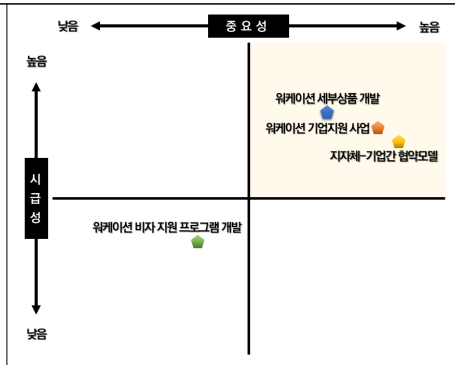
- 전문가집단은 정책지원의 영역에서 '법·제도적 지원',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사업체 발굴' 이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 평가하였으며, '광역·기초 협의회', '지역관광진흥조직 협의체', '범부처간 협의체'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항목으로 평가되었음

-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위케이션 세부상품 개발’, ‘위케이션 기업지원 사업’, ‘지자체-기업간 협약모델 개발’이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항목으로 분석되었으며, ‘위케이션 비자지원 프로그램 개발’ 항목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낮게 평가되었음

[그림 4-3] 정책지원 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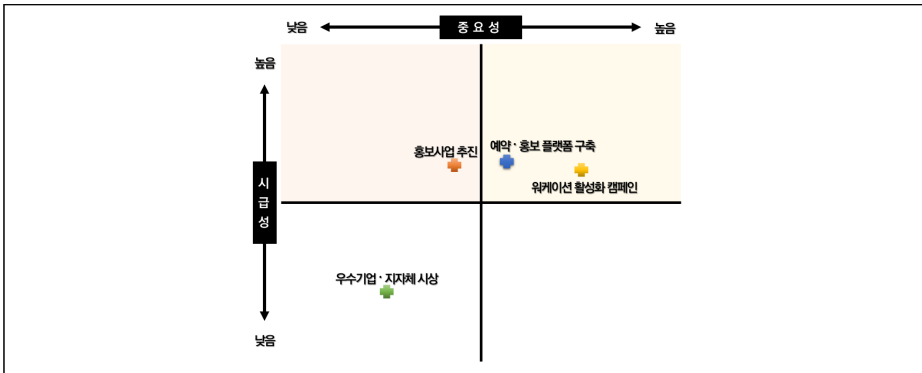


[그림 4-4] 프로그램 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 마지막으로 홍보의 영역에서는 ‘예약 및 홍보 플랫폼 구축’, ‘위케이션 인식전환 캠페인’이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항목이며, ‘국내외 홍보’에 대해서는 중요성은 낮지만 시급한 과제로 평가되었음. 마지막으로 ‘위케이션 우수기업과 지자체 시상’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은 항목으로 평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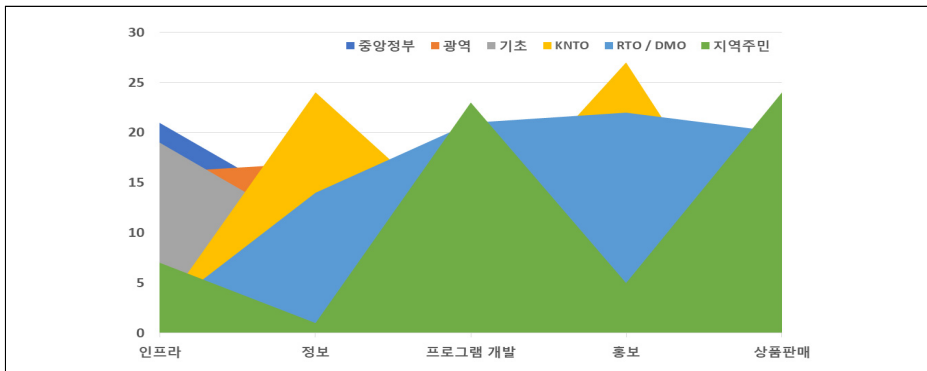
[그림 4-5] 홍보영역 중요-시급성 평가



3. 이해관계자별 역할분담 평가

-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지원을 제외한 4가지의 영역과 함께 상품 판매의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이해관계자별 역할분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함
 - 먼저 인프라구축은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다수가 응답했으며, 정보구축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관광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지역관광진흥조직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홍보는 한국관광공사 및 지역관광진흥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마지막으로 상품판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역주민과 지역관광진흥조직의 역할이라고 평가하였음

[그림 4-6] 영역별 이해관계자 역할분담



<표 4-3> 주체 및 역할별 빈도분석

구분	인프라	정보구축	프로그램 개발	홍보	상품판매
중앙정부	21	12	0	10	0
광역자치단체	16	17	6	12	1
기초자치단체	19	10	19	11	5
한국관광공사	2	24	10	27	3
지역관광진흥조직	27	14	21	22	20
지역주민	7	1	23	5	2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자 간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은 학계·지역연구기관 및 공공부문 사업담당자들 대상으로 총 30부의 설문을 배포하고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를 위해 국내에서 추진했던 대표적인 워케이션 사업에 대해서 목적, 사업형태, 기간, 프로그램 등을 관련기관의 공고문과 홍보문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민간기업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홍보자료와 신문기사를 토대로 정리하였음
- 공급과 수요부문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추진영역을 구분하였음. 먼저 공급부문에서는 인프라, 정보구축 및 정책지원의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수요부문에서는 프로그램과 홍보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인프라 구축영역에서의 정책대안은 숙소, 사무공간, 원격업무 환경에 대한 구축 지원이 중요하며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책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정보구축 영역에서는 워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정책지원 영역에서는 주민주도의 워케이션 사업체 발굴 및 법·제도적 지원이 중요하고 시급한 영역으로 조사되었음
 -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는 워케이션 세부상품, 워케이션 기업지원 사업, 지자체 기업간 협약을 통한 모델발굴과 더불어 워케이션 인식전환 캠페인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진흥조직, 지역주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는 관련 인프라 구축, 정보구축과 홍보는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진흥조직, 마지막으로 세부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도출되었음

2. 시사점

1) 공공주도형 워케이션 프로그램의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앞서 제시된 워케이션 사업은 국내에서 도입되고, 처음 시행된 워케이션 시범사업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주도형 사업임
 - 우리나라보다는 3년 정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단기간에 워케이션 사업의 모델을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였음
 - 공공에서 주도한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지역내 리조트 또는 호텔의 평일 객실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음. 이후 공유오피스와 지역관광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향후 지역관광산업과 방문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상품으로 구성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파급력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근무지·숙박 인프라 확충 및 워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정보구축 필요

-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가 합쳐진 신조어지만 사무환경과 원격업무를 위한 환경에 대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내 숙소개선이 중요함
 -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지내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원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터넷, 사무장비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업무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이며 숙소개선을 통해 체류환경 조성이 필요함

- 아직까지 워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정보가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외 지역에서는 워케이션을 도입하고자 해도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추진이 어려움. 기업환경에 따라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원 및 규모, 직원들의 원하는 환경 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다양한 상품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함

3) 워케이션 세부 프로그램 발굴 및 기업지원 필요

- 기업이 처해있는 환경과 함께 직원 수요를 고려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일부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워케이션 참여의 마중물 역할 필요
 - 기업이 주도하여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을 구성하는 것과 기존의 상품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중간역할자가 아직까지는 부재하기 때문에 상품의 다양성에 제한적임
 - 일반 기업에서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비용지원과 함께 워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정보와 대상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 등에 대한 사례를 홍보하여 참여동기를 유발시키는 노력도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워케이션에 대한 기업임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상생, ESG 경영활동의 일환 등 기업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홍보함

4)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 워케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부, 기업, 주민과 이를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중간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각 주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이 상이하기 때문에 역할이 다를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요구될 것임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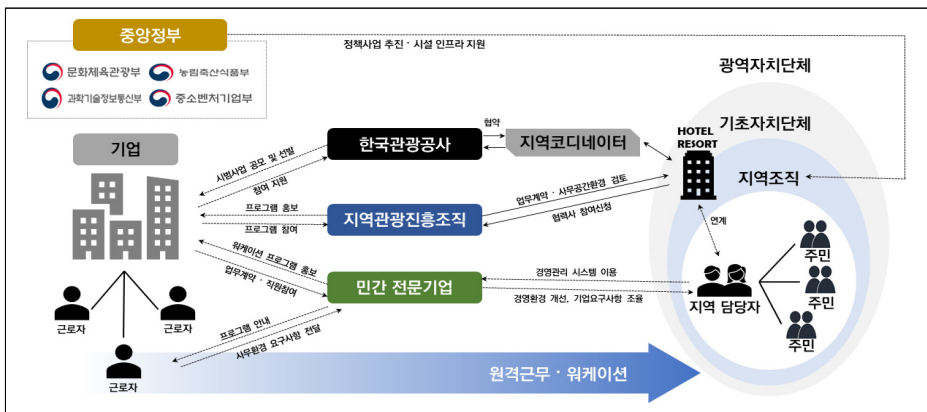
제5장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제1절 기본방향

-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환경변화를 통해 업무생산성 향상,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음. 최근 위케이션은 관광지에서의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코로나19로 야기된 새로운 트렌드임
 - 근로자들에게는 근무만족도 상승, 직장에서의 새로운 경험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에는 기업경쟁력 강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및 ESG활동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킨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기업과 근로자측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관리직군의 부정적 인식등과 같은 단점도 존재함
 - 하지만 비수기 및 평일에 지역으로 이동객을 유입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지역에서의 관광활동 유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계인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앞서 위케이션 동향, 국내외 추진사례 및 전문가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위케이션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경제교류가 예상됨

[그림 5-1] 위케이션 추진 현황



- 위케이션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보발신의 주체가 일관되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예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시설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만족도 하락과 기업입장에서는 제도추진에 대한 비용낭비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는 국민·기업·지역이 상생하여 위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은 위케이션 시설 및 환경 조성지원과 위케이션 수요 확대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 먼저 위케이션 시설 및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인프라 조성, 정보구축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으며, 인프라조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원격업무환경 구축지원, 숙박환경 조성지원 및 거점오피스 구축 지원, 주민주도형 사업체 발굴 및 정책 및 사업 협의를 위한 수단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위케이션은 ‘휴가지 원격 근무’의 개념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므로 대상지 업무환경 구축지원이 필수적임
 - 체류형 관광모델에 속하며 소규모 그룹투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일반 기업에서 소규모 팀단위로 이동했을 경우 지역에서는 최소 5~6인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며, 청결함과 위생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유희공간을 활용한 거점오피스 구축을 통해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인근지역과의 숙박·체험·생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함
 - 주민주도형 위케이션은 지역에 파급력이 큰 모델이지만 시장 초기상황이라 대표적인 사례가 부족하며 세부유형, 운영모델 개발 등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위케이션 협의체를 통해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역관광진흥조직 상호간 정보교류, 성과공유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둘째로는 위케이션 관련 정보구축을 위해 위케이션 대상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모델 가이드 제작, 위케이션 실태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에서 위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과 정보접근성을 제고시켜 민간시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 위케이션 구성요소에 포함된 사무공간과 숙박시설에 대해 시설, 위생 등 최소한

의 기준요소와 안내가이드, 주요 구축사례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작함

- 정기적인 워케이션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업, 근로자, 중간조직, 근로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개선요소 발굴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된 기업이라면 개인이 자율적으로 관광지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음. 워케이션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환경을 더욱 유연하게 만든다는 의미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부프로그램 개발, 홍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워케이션 수요확대를 위해 워케이션 세부상품 개발, 기업 지원사업 추진, 지자체-기업간 협약모델 개발 및 법·제도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음
 - 기업이 지역과 연계하여 직원들을 워케이션에 보내기 위해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상품확인이 어렵고, 성공적인 사례를 직접 찾아 협의해야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예상되는바 워케이션 상품의 개발이 필요함
 - 워케이션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일정부분 지원을 실시하여 참여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기업과 지역이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인구 형성 및 지역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협약모델 개발이 필요함
 - 워케이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함
-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인식전환 캠페인, 전략적 홍보 추진, 예약 플랫폼환경 조성이 필요함
 - 국내외 인식전환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임원과 직원이 공감하는 워케이션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위주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함
 -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관광지의 이미지보다는 업무·성과를 강조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전략적으로 홍보함
 - 지역단위 워케이션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개별적으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공공 예약플랫폼이나 민간기업에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판매하는 등 예약을 위한 플랫폼환경 조성이 필요함

- 중앙부처,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진흥조직, 민간조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간 역할을 조정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었을 경우 향후 위케이션 정책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음
 -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는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정보 구축과 홍보역할을 증점적으로 수행할 뿐만아니라 지역관광진흥조직과 지역주민조직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과 상품판매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지역 주민조직이 기업과 연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수익적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나 RTO, DMO 등과 같이 공공성격의 지역관광진흥조직과 민간 전문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각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2절 분야별 정책추진 과제

1.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

가. 원격업무환경 구축 지원

- 원격근무를 도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는 원격근무의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사업 바우처 도입을 통해 원격근무환경 도입을 추진하였음
 - 과기부는 2022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대상 원격근무 업무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함
- 워케이션 근무를 위해서는 업무공간이 필수지만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근 카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기업-개인간 비효율 발생이 우려됨
- 워케이션 대상지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무공간에 대한 원격근무 환경을 점진하고 기업 및 기술관련 부처와의 사업을 연계하여 원격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원사업을 발굴함
- 원격근무는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우선 개선사항으로 추진되어야 함

나. 숙박환경 조성지원

-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숙박객실은 대부분 영세하며 워케이션 참여자들이 조직단위로 참가할 경우에는 객실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객실이 부족할 경우 인근지역의 중소 리조트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남

- 지역단위의 숙박객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로서 위생관리에 대한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위케이션을 위한 숙박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지식이 부족할 수 있음.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강함
 - 위케이션 숙박환경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은 현재까지 없지만 향후 위케이션 표준매뉴얼 구축사업 등을 통해 위케이션 사업자들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함
-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위케이션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소규모 팀단위로 이동하여 업무와 숙박을 동시에 할만한 장소가 부족한 상황임.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활성화된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임
 - 트렌드의 발생 단계에서는 정부의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빠른 기간에 준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과제임

다. 거점오피스 구축 지원

- 지역에서 위케이션 참여자들이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기업이 분사오피스 형태로 지역에 내려가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는 기업대상 유치 프로모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주고, 인근 호텔·리조트를 제휴하는 형태로 숙박을 제공함으로써 위케이션 참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일반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으로 합숙 또는 장기간 출장가는 경우 지역오피스를 임대하거나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최근 CJ는 지역의 거점오피스를 구축하고 직원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근무하는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기도 하며, 카카오는 제주도내 위케이션 센터를 건립중임
 - 대기업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향상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위케이션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도 적절한 비용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지역거점 오피스를 임대하는 방식으로도 발전할 수 있음

-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거점오피스가 구축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인근 지역의 숙박시설이 운영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인근지역의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거점오피스를 먼저 구축하고 숙박시설을 연계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모델로 고려해볼 수 있음

라. 주민주도 워케이션 사업체 발굴

- 우리나라 워케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도심의 호텔·리조트, 공공주도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요도 있으며, 관련 산업성장과 함께 인식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지역중심,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워케이션 사업형태 발굴이 필요함
 - 아직까지 주민주도형 사례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질그랭이 센터’와 서천군 ‘한산디지털 노마드 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제주도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사례이며, 통상적으로 워케이션은 해안가를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지역의 청년과 마을 주민이 협동하여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재생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지역에서 다양한 모델이 출현하여 지역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관계인구를 형성하는 워케이션 사업의 추진 목적과도 일치하므로 지역을 활용한 정책사업과 모델발굴이 필요함
 - 지역리조트, 지역거점 오피스와 연계한 모델도 시장의 수요가 있을 것이며, 정부에서의 시장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건강한 워케이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및 사업추진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두레, 지역관광진흥조직과의 연계, 관광벤처와의 산업연계 서비스를 지원하여 워케이션 생태계에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요구됨
 - 특히 관광벤처기업에서는 워케이션 특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주민주도형 워케이션 사업체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자들간 연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체 유도와 더불어 중장기적 투자와 지원이 요구됨

마. 정책 및 사업 협의를 위한 수단 마련

- 일본 관광청은 2020년부터 「새로운 여행 스타일」의 보급과 촉진을 위해 기업, 지역, 관광·경제단체, 관련 중앙부처와 연계하면서 단계적인 활동을 실시함
 - 중앙부처로는 내각부, 총무성, 후생노동성 등이 참여하여 부처의 사업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워케이션 지자체 협의회는 일상의 직무를 하면서 워케이션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목적으로 2019년에 창립하여 2022년 현재 212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정보교환, 메가이벤트 공동협력, 정보발송 및 워케이션 보급촉진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 기업과 지역의 중간에서 상담과 기획, 필요한 예약과 동행서비스를 하는 워케이션 코디네이터가 새로운 직무의 유형으로 나타났음
 - 지역주민과 기업의 직접적인 소통은 활동영역과 아이템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효과적임
 - 와카야마현의 코디네이터는 여행사, JTB 와카야마 지점, 와카야마 워케이션 센터(유타카 교통주식회사), 투어리즘뷰로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확장하고 있음
- 워케이션 협의체와 코디네이터는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업의 형태가 아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부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일부는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위해 창업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음
-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인 워케이션 협의체와 코디네이터는 기업과 지역의 상호간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상생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은 지역협의체나 코디네이터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할이 나타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워케이션 관련 정보 구축

가. 워케이션 대상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워케이션을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IT관련 직무종사자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사람들로 파악됨. 이들이 워케이션을 떠나기 위해 검색을 하게 되면 평일주중 호텔이나 리조트 워케이션 상품이 제공되고 있음
 - 최근 발생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들을 집적할 수 있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으며, 워케이션 상품판매를 위한 정보조차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은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함
- 시장이 활성화되기에 앞서 다양한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수요자가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임
 -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보량이 확보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상품으로 형성되고 관련한 민간 플랫폼 등장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장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임
 -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를 공유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나. 표준모델 가이드 제작

- 초기시장 형성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은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창의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그러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는 것은 수요자에게 공급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추진해볼 수 있음
- 표준모델에서는 숙박·사무공간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전조사 비용을 감소시키게 만들고, 예비창업자에게는 진입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최소기준을 바탕으로 향상된 서비스 상품으로 개선될 수 있음

- 기존 사례 및 해외 사업의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국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유형이 발생될 수 있음

다. 워케이션 실태조사

-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기초 데이터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현재는 기업에서의 설문조사나 내부자료들로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 워케이션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인구 형성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파악이 어렵고 정책투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효과적인 정책수단 선정이 어려움
- 워케이션 공급자, 수요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데이터 축적은 워케이션 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일본의 정책사례에 따르면 매년 수요자 2천명, 사업자 400명과 더불어 공급자들과 기업들의 표적집단 면접을 통해 저해요인 파악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함으로써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3. 워케이션 수요확대

가. 워케이션 세부상품 개발

- IT 대기업은 자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나 중소기업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며 기업차원에서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 워케이션 시장은 도입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시장에서 자체적인 상품을 기획하여 여행사나 자사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기업담당자

들에게는 워케이션을 하는 것이 일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임
 - 적절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일과 이후에는 휴식이나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 탐색의 어려움과 플랫폼의 부재로 원활한 정보획득이 어려움

-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업체들이 등장해야 하고 상품판로 확보가 필수적임
 - 초기 창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구성하면서 적절한 가격과 세부 프로그램을 조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품구성을 위한 도움이 필요함
 - 상품의 원가구조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간 합의가 존재해야지만 시장에서의 상품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민간영역에서 상품을 구성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몫이지만 워케이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다양한 상품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설계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 관광분야의 컨설팅 능력을 갖춘 지역진흥기관들이 상품을 구성하는데 기여하고 홍보를 담당해줌으로써 지역창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분위기 조성과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역할을 중간지원조직들이 참여한다면 전문 컨설팅을 통해 상품구성부터 홍보의 역할을 지원한다면 지역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음

나. 기업 지원사업 추진

- 중소기업들은 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사무공간의 마련과 참여자 비용지원 등과 같이 금전적 지출에 대한 부담이 존재함
 - 워케이션의 개념을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라면 개인비용의 투입은 부담요인으로 발생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어려움으로 작용함
 - 서울산업진흥원은 2022년 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기관, 기업, 지역이 동시에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참여와 함께 만족도도 높았음. 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의 일환이기도 하며 근무만족도를 제고시키는데 지원하여 목적을 달성하였음

- 초기 단계에서는 중앙정부·지자체·기업간 참가비 매칭을 통해 정책의 마중물 역할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정부, 지자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면 정책자금의 투입이 타당할 수 있음
 - 매칭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고려될 수 있음. 지역으로 사람을 이동시켜 경제를 순환시키고, 기업은 근로자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삶의 만족도 제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다. 지자체-기업간 협약모델 개발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시설을 조성하는 단계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는 지자체-기업 협약을 통해 지역과 기업의 상생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많은 기업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도 관광재단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저녁프로그램에 지역사회 봉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일본의 사례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의 일환으로 ESG 활동과 연계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함
- 기업과 지역에서의 상호간 이익요소가 결합되고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다면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라. 법·제도적 지원

- 원격근무에 대한 도입은 200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 고용노동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원격근무는 ‘주거지, 출장지 등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해왔음. 재택근무는 근로자, 기업, 정부의 입장에서 장점이 존재하며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한국은행, 2020). 다만,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어떤

- 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이 어려우며 앞으로는 하이브리드형 근무형태가 최적의 조합으로 형성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재택근무는 곧 원격근무의 형태이며, 근무의 장소를 재택이 아닌 관광지 또는 휴양지에서의 원격근무를 워케이션으로 보고 있음
 - 재택근무가 확산되지 못한 이유는 대면 의사소통과 협업이 부족해지고, 사무실 근무에 대한 관심이 형성된 상황에서 경영진과 근로자의 갈등요소도 있음
- 근로자들은 사업자와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 중 선택적 시간근로제나 시차출퇴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근무나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조직은 일부임.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재택근무를 하였으나 보편화된 근무형태는 아님
 -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근무지가 재택이 아닌 관광지 또는 휴양지라면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허용범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기업특성에 따라 근무제도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허용의 범위는 경영진에게 있기 때문에 원격근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중요함
 - 타 법에서도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내부적인 규정정비에 앞서 근무형태에 대한 경영진의 유연한 사고방식이 전환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4. 체계적 홍보사업 추진

가. 국내외 인식전환 캠페인 추진

- 보수적인 근로문화에서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임원과 인사부문 직원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근태중심의 평가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측은 워케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되며, 성과중심의 직무평가가 가능한 직종과 업무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대부분 IT업종이 원격근무가 가능하면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

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가 워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굴하고 캠페인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일반적인 워케이션 홍보사진은 멋진 자연환경에서 태블릿PC를 통해 업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해당 홍보물의 영향력은 확인하기 어려움
 - 캠페인의 모습은 자연환경이 아닌 수행한 업무와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성과위주로 홍보하는 방향이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워케이션의 목적이 휴가가 아닌 업무의 일환이라는 점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임
 - 일부 인터뷰에서는 워케이션에 가서는 통근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되어 업무성과가 제고되고, 직원들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대감도 상승됨
-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가 구축되고 본격적인 참여 전 업무성과 향상, 직원 유대감 형성 및 ESG 경영 등을 기반으로 실시함

나. 전략적 홍보 추진

- 근로자와 경영진들이 인식하는 워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상반되고 있으며, 일부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접하는 정보는 실제 참여에서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주요 이해당사자간 인식차이를 줄이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유연한 근로문화 개선 노력을 추진함
- 정부는 동영상광고, 기업대상 세미나, 콘텐츠 제작 및 배포,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기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이 기업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기업간 교류를 통해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해설동영상, 동행취재와 같은 동영상물을 제작함으로써 워케이션의 장점과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고하도록 함
 - 워케이션 상품과 플랫폼이 조성되면 적극적인 SNS 홍보를 통해 플랫폼 유입과 지역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함

다. 예약 플랫폼 환경 조성

- 위케이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호텔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지역리조트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음. 위케이션 상품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예약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시기상조로 판단됨
- 다만,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출현하고 지역단위의 관광진흥조직이 많은 상품들이 출시되었을 때에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예약 플랫폼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후에는 지역으로부터 위탁받은 중간지원조직이나 지역관광진흥조직이 기업 혹은 개인이 계약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조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 본 연구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워케이션이 트렌드로 부상하게 된 현황과 이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검토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파악함
 - 둘째,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비교함으로써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국내실정에 적합한 과제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를 도출하여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본에서 시작되었음(Yoshida, 2021).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지가 분산오피스, 자택이 아닌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개념임
 - 국내외 정책사례를 검토한 결과 워케이션에 필요한 요소는 사무공간과 숙박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워케이션 대상지에 대한 사례가 공유되고 있음
 - 기업의 참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과 실제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간 비용분담구조를 통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함
- 워케이션의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정부·기업·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만들어내는 사업모델이 소개되고 있으며, 지역주도로 상품을 만드는 사례도 있었지만 공유오피스를 토대로 위케이션 수요를 창출시키는 사례도 확인하였음
- 해외사례에서는 대부분 지역과의 밀착연계를 통해 지역소득의 파급효과를 확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국가단위의 인식전환 캠페인,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식전환의 계기를 유도하고 있음
-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 주도형 위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추진해야함
 - 공급측면에서는 대상지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정보구축을 시작으로 상품의 다양화를 만들어가며, 정보제공의 기초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수요측면에서는 위케이션 세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품의 다양화를 촉진하며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위케이션 참여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함
-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영역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음

〈표 6-1〉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과제

정책방향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시설 및 환경 조성지원	위케이션 인프라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업무환경 구축 지원 ◦ 숙박환경 조성 지원 ◦ 거점오피스 구축 지원 ◦ 주민주도 위케이션 사업체 발굴 ◦ 정책 및 사업 협의를 위한 수단 마련
	위케이션 관련 정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케이션 대상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 표준모델 가이드 제작 ◦ 위케이션 실태조사
수요확대 방안	위케이션 수요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케이션 세부상품 개발 ◦ 기업 지원사업 추진 ◦ 지자체-기업간 협약모델 개발 ◦ 법·제도적 지원
	체계적인 홍보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인식전환 캠페인 추진 ◦ 전략적 홍보 추진 ◦ 예약플랫폼 환경 조성

제2절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위케이션 개념이 도입되고 지역, 기업, 근로자간 수요가 공통되는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 세계 각국에서는 유연한 근무형태에 대한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디지털 노마드족들의 근무형태가 소개되었음.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유명 휴양지에서는 디지털노마드 빌리지를 조성하였음
 - 본 연구의 조사에서도 (가칭) 노마드 빌리지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였는데, 가장 낮은 중요도와 시급성으로 나타났음. 디지털노마드 빌리지는 장기 체류자를 영입하면서 입국국가에서의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디지털노마드들이 고려하는 요인은 디지털 업무환경, 거주를 위한 소비자물가, 화상회의를 위한 시간대(time zone)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국가에 속하며, 유럽과의 시간대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략시장은 중국, 일본 및 동남아권이 해당될 수 있음
 - 이러한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문체부 사업대상지인 국제관광거점도시, 스마트관광도시 등이 될 수 있음. 관련 인프라와 관광환경이 조합된 지역이므로 시범적 적용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위케이션 정책의 이상적인 목표는 가족단위로 지역에 체류하면서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향후 정주인구까지 확장되는 모델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유연한 근무제도 속에서 지역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지출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직장동료는 기업의 비용이 투입되지만 가족단위로 참여자는 기업지원 비용과 더불어 개인비용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학령기 자녀의 등교문제, 유아기일 경우에는 육아의 문제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 타부처 정책목표에 부합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워케이션 정책 도입을 통해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유희공간을 재생하는 등 일본은 지역의 정주민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여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2022년 8월 인구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을 발표하고 지방에서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차등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정책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워케이션을 도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워케이션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기에 지역·기업·국민에게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참고문헌

가. 문헌자료

- 강민정·박선미(2020), 스마트워크 정책 동향: 주요국 원격근무를 중심으로.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 서울 이슈리포트(2).
- 김승남·주종웅(2014), 원격근무의 정의, 현황, 그리고 전망. 정보화정책, 21(2), 89-110.
- 박효연·황지영(2021), 워케이션 활성화 및 관광상품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기업 임원 및 인사총무담당자 인식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0(2), 161-178.
- 사무실 떠난 직장인, 휴가 아닌 일하는 중입니다(2022.10.19), 『이데일리』
- 삼정KPMG(2021). ESG 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삼정 Insight 통권, (74).
- 송미령·김광선·심재현·김용욱·나현수(2021), 도농 상생을 위한 스마트워크 복합공간 조성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와카야마현(2020), 와카야마현 및 워케이션 지자체협의회 2020년도 사업보고.
- 와카야마현(2020), 와카야마현의 워케이션 활동, 제1회「새로운 여행 스타일」검토 위원회의자료(20201023).
- 이영주·황보원주(2021), 강원도 스마트 워케이션 추진방향, 강원연구원.
- 한국관광공사(2021a), 워케이션 실태조사 및 워케이션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관광공사(2021b), 워케이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관광공사(2022), 2022 관광트렌드 HABIT-US.
- 한국은행(202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 쟁점과 평가, 보도참고자료.
- Amano, H. (2018). Workcation: Wakayama Prefecture's proposal for a new workstyle and regional revitalization. ESTRELA, 291, 2-13.
- Helling, A. & Mokhtarian P. L. (2001). "Worker Telecommunication and Mobility in Transition: Consequences for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5(4): 511-525.

- Matsushita, K.(2021). Worka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Local Area in Japan. In The Flexible Workplace, 215-229.
- Ozimek, A. (2020). The future of remote work. Available at SSRN 3638597.
- Pecsek, B.(2018). Working on holiday: The theory and practice of workcation. Balkans Journal of Emerging Trends in Social Sciences, 1(1): 1-13.
- Tourism teacher(2020.12.09.). Workation explained: What it means and how it works. Retrieved from <https://tourismteacher.com/workation>.
- Yoshida, T.(2021). How has workcation evolved in Japan. Annals of Business Administrative Science.

나. 홈페이지

- VISAGUIDE(<https://visaguide.world/digital-nomad-visa>)
- 강원도 관광재단 워케이션 홈페이지(<https://workation.co.kr>)
- 고용노동부(<https://moel.go.kr/policy>)
- 디지털 노마드 벨리 공식홈페이지(<https://www.workremotelycroatia.com/>)
- 마데이라제도 워케이션 공식홈페이지(<https://digitalnomads.startupmadeira.eu/>)
-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https://www.sba.seoul.kr>)
- 와카야마현 (2020.01.24.) Wakayama Workation Networks
- 일본관광청(<https://www.jnto.go.jp>)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http://investjeju.or.kr>)
- 후쿠오카시 워케이션 포탈 사이트(<https://workation-fukuoka.jp>)

- 観光庁(2021), 「新たな旅のスタイル」促進事業 (中間報告) .
- 観光庁(2022), 今年度事業の結果報告, 令和4年3月17日.
- 和歌山県(2020), 和歌山県におけるワーケーションの取り組み,
- 和歌山県(2020). 和歌山県及びワーケーション自治体協議会 令和2年度事業報告,

ABSTRACT

Research on how to promote workcation

Sungyu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promote the “workcation,” or working vacation, with the following detailed plans as described herein.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question of why the workcation has become an emerging trend an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n workcation. Additionally, it comprehensively identifies issues from the perspectives of supply and demand. Second, this study compares workcation programs implemented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Korea with workcation programs being promoted in other countries and it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ng workcation and projects suitable for the domestic conditions. Lastly, this study presents what policy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as the means to facilitate workcations and a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ng the workcation.

The new term “workcation” --combines the words “work” and “vacation”--emerged in Japan (Yoshida, 2021). The concept began with the idea that when workers work remotely, they can also enjoy vacation time while performing their work in a distributed or shared office located in a resort or tourist destination instead of staying home. The findings of reviews o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cases show that a workcation requires office space and accommodations. This study has examined overseas cases and found some in which workcation destinations centered on regions and led by local residents over the course of policy projects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need for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to encourage corporate participation was observed along with actual

cases, and it was found that continuous public-relations activities have contributed to changing awareness on workation. Lastly, a cost-sharing structure among stakeholders can also provide an opportunity to facilitate workation.

In this study,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workation were reviewed together, and it was found that the workation programs implemented in Korea are different from the programs carried out in other countries. In Korea, business models that the government, corporations, and regions jointly create are being introduced. There were a few cases where workation programs are made by regional local initiatives, and some cases where demand for workation was created based on shared offices were also observed. In other countries,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programs tend to expand the ripple effect of regional income generation by closely working with locals. Additionally, it was observed that other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awareness campaigns and public-relations activities at the national level, leading to an opportunity for awareness. The results of survey conducted with experts show that the public sector-led workation programs should be connected with local communities by guiding their benefits to trickle down to local regions. From the supply point of view, it should start with infrastructure building and information gathering in the target destinations and create more diversified programs as the next step. At the same time, basic means for proving information should be prepared. In terms of demand, detailed workation programs should be continuously developed to offer more diverse workation programs. Also,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workation through corporate support projects.

In this stud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areas and detailed projects were derived.

On the supply side, workation infrastructure building, implementation of projects for workation-related information gathering, and government's policy support are required. In order to create workation infrastructure, projects that can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 remote work environment,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environment, and distributed offices are needed. To put together information about

work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database on workation destinations, create guidelines for standard models, and keep track of the status through surveys on workation. For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build workation business models led by local residents. Also, it is necessary to explor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Lastly, a communication channel for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demand, a direction to expand workation demand should be set and systematic public-relations activities should be implement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esign detailed workation programs and implement policy projects that support companies. Additionally, a collaboration model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ompanies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facilitate systematic public-relations activities, along with the awareness campaigns implemented home and abroad,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ways to promote workation based on actual cases where the workation has helped garner achievements instead of focusing on workation facilities or environment. Additionally, we can also consider the creation of a reservation platform or database as a pilot program and offering it to the private-sector market.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부록

설문조사표

민간주도 위케이션 추진현황

국내 대기업 및 IT 기업들은 자사가 보유한 연수원, 지역지사, 거점오피스 구축 등을 활용하거나 해외 원격근무를 허용하면서 새로운 근무제도를 도입·실험하고 있습니다.

위케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수인재 유치때문으로 보도(한국경제, 7.18)
-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이 차별화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

네이버 : 매주 10명의 직원을 추천하여 강원도 춘천 및 일본도쿄에서 4박 5일 근무
카카오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 위치한 본사에 위케이션 센터 건립 예정(8.11 기사)
라인플러스 : 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로 근무지 확대 (체류기간 90일 한정)
배달의 민족 : 2023년부터 모든 직원 콤파트·폴디브 원격근무 허용
티몬 : 50명 직원에 한해 제주, 남해, 부산 4박 5일 근무 허용 (스트리밍하우스 연계)
롯데멤버스 : 월~목요일까지 제주, 부산, 속초 근무자를 추천 (계열사 리조트·호텔)
CJENM : 제주 거점오피스를 구축하고 위케이션근무를 실험(지원금 月 200만원)
한화생명 : 강원도 양양근무 허용 (양양브리드 호텔 원격근무지)

위케이션 영향력 등 평가

Q1. 상기 내용과 같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위케이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공공주도 위케이션					민간주도 위케이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방문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위케이션 트렌드의 지속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위케이션 트렌드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Q2. 위케이션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정책키워드와 대응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책 키워드	
대응방향	-

정책대안 평가

Q. 아래의 정책대안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요.

구분		중요성					시급성					
		낮음←보통→높음					낮음←보통→높음					
공급부 문	인프라	1.지역내 숙소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위케이션 사무공간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원격업무환경 구축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거점 공유오피스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가칭)위케이션 빌리지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정 보 구 축	1.표준모델 가이드 제작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위케이션 대상지 정보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위케이션 현황·모니터링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위케이션 대상지 인증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정 책 지 원	1.광역/기초자치단체 협의회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지역관광진흥조직 협의회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범부처간 위케이션 협의회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주민주도 위케이션 사업체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법·제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수 요 부 문	프 그 램	1.위케이션 세부상품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위케이션 기업지원 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지자체·기업간 협약모델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위케이션 비자 지원프로그램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홍 보	1.위케이션 예약·홍보 플랫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국내외 홍보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위케이션 인식전환 캠페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위케이션 우수기업·지자체 시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주체별 역할분담 평가

Q. 위케이션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정책 주체들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역할에 체크(√)해주시요

구분	인프라 조성	정보구축	프로그램 개발	홍보	상품 판매주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지역 관광공사·관광재단					
지역주민조직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집필내역

연구책임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장 ~ 제6장. 총괄

공동연구

김현지 동의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2장, 제3장, 제5장 일부

김형곤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 제3장, 제5장 일부

연구자문

안효원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팀장

박영건 서울산업진흥원 교육본부 교육지원팀 책임

최동석 강원도관광재단 국내관광마케팅팀 최동석 팀장

박효연 전남대학교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

진민경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박사

위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63-5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45>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김성윤·김현지·김형곤(2022), 위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45>

